metro
메트로 2014년 2월 17일 월요일 제2915호 www.metroseoul.co.kr

스켈레톤 윤성빈 "보고있나"

혈세 축내는 '불량 낙하산' 그만!

벅토르 안 '눈물의 금메달'

한국 쇼트트랙은 '쓴웃음'

안현수가 15일 러시아 소치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팰리스에서 열린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결승에서 우승한 후 링크에 무릎을 꿇고 입맞춤을 하고 있다. 러시아 귀화 3년 만이자 토리노올림픽 이후 8년 만에 금메달을 딴 그는 대한빙상연맹과의 갈등 등 지난 고통의 시간이 떠오르는 듯 눈물을 흘렸다. 결승에서 반칙 판정을 받은 신다운의 허탈한 뒷모습이 대조를 이룬다. <관련기사 23면> /연합뉴스

연중기획 '다시 공정사회다' 4. 공기업 비리 근절

"공공기관 부채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상위 기관부터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

"부채 감축, 방만경영 개선에 대한 의지와 실행력이 부족한 기관장은 임기에 관계없이 조기에 교체할 것이다."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공기업 비리의 뿌리를 뽑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사하고 부당하게 유출된 자금도 회수해 제도적·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겠다." – 법무부

현 정부 기관장·상임감사 절반가량 비전문가
부채 감축 등 공공부문 개혁 어려다간 공염불

박근혜 정부가 올해 들어 본격적인 공기업 개혁에 나섰다. 공기업은 그동안 꾸준히 낙하산 인사, 방만·부실경영 등이 지적되며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올해를 '공공부문 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공공기관 부채 비율을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부채 과다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12개 기관을 중점 관리기관으로 지정해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정상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된 공기업 개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공기업 부조리의 최대 문제였던 낙하산 인사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같은 목소리를 박근혜 정부도 분명 듣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낙하산 인사 근절에 대한 의지는 여전히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같은 공기업의 방만·부실경영으로 인한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온다. 공기업들은 부채 감축을 위해 수도, 전기, 고속도로 통행료 등 서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물가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민들은 월급 철밥통이라 불리는 조직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공기업의 부조리한 현실을 마주하고 자신들에게 튀는 불똥을 바라보면서 "공기업 비리를 세금으로 메꾸는 격"이라며 격앙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관장들 연봉은 '억' 소리 나네

우리나라 공기업 총 부채는 지난해 기준 493조4000억원에 달한다. 빚이 가장 많은 기업은 LH로 138조1221억원에 달했다. 뒤를 이어 ▲한전 95조886억원 ▲예금보험공사 45조8855억원 ▲한국가스공사 32조2528억원 ▲한국도로공사 25조3482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부채 속에 이자도 제대로 갚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각 공기업 기관장 연봉은 '억' 소리가 쉽게 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공기업 기관장 연봉을 손질하기로 했다. 물론 뒤늦은 내자리는 지적도 있고 여전히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채 규모가 가장 큰 LH의 경우 현재 3억1000만원에 달하는 기관장 연봉을 2억3000만원으로, 한전은 3억8000만원에서 2억8000만원으로, 가스공사는 3억4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던 금융공기업 기관장 역시 연봉을 축소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장 연봉은 5억2000만원에서 3억8000만원으로, 이보 사장 연봉은 3억5000만원에서 2억8000만원으로 줄었다.

<2면에 계속>

/박성원 미래경기자

사표 내고도 1000만원대 월급 '꼬박꼬박'

연중기획 '다시 공정사회다' 4 공기업 비리 근절

청렴 기대하기 힘든 '윗물'탓에 '아랫물'도 모럴해저드
공기업 개혁안 최우선 순위 당연히 '낙하산 인사 근절'

<1면에서 계속>

◆공기업은 비리 백화점 한수원 5년간 675건 감사 적발

감사원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예산 규모 2000억원 이상 30개 공기업 감사 실태를 분석한 결과 한국수력원자력이 675건 적발돼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에 이어 한국전력공사가 577건, 한국동서발전이 494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92건, 한국남동발전이 231건, 한국수자원공사가 231건, 한국도로공사 228건, 한국철도공사 211건, 한국공항공사 209건, 한국가스공사 144건 등의 순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수원과 한전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각종 비리가 지적된 바 있다. 지난해 5월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에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불량 부품이 사용된 사실이 적발됐고, 한수원 임직원들이 최근 3년간 1억여원에 강의료 명목으로 4억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한수원 임직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외부 강의료 4억593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했음에도 사표 수리가 되지 않아 4개월간 75억4200만원에 이르는 급여가 지급됐다. 이는 1인당 월평균 1095만원이 지급된 셈이다.

지난해에만 한수원 직원들이 원전 비리에 연루돼 징계받은 횟수만 65건이었으며, 이로 인해 직원 45명이 해임됐고 직위 해제 4명, 정직 13명, 23명이 감봉 처분을 받았다. 대부분 금품 수수와 향응 등이 문제가 됐으며 시고보고 은폐, 마약, 업장 방해 등도 문제가 됐다.

한전 역시 2005년 7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원전 업체 1곳으로부터 원전부품 납품과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3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종찬 전 부사장이 구속되며 징역 1년6월과 벌금 4400만원, 추징금 3600만원이 선고되기도 했다.

◆뿌리 뽑히지 않는 '낙하산 인사'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는 매번 역대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에 정부 역시 낙하산 인사 근절을 약속했지만 공공기관장 78명의 인사 중 34명이 낙하산 인사로 분류될 정도로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기업 개혁안에도 낙하산 인사 근절에 대한 언급은 없어 국민들이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기관장뿐 아니라 공기업의 내부 감시자 역할을 하는 상임감사 역시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공기업 상임감사 24명 중 11명이 정치권이나 군인, 경찰 출신이다. 전혀 업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비전문가 출신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기관장 및 상임감사들이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면서 내부 청렴도는 갈수록 추락하고 각종 비리로 얼룩져 공기업 부채 및 방만경영 해소는 여전히 제자리라는 목소리가 높다.

/박선옥 이혜령기자 ssw@metroseoul.co.kr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각 공기업 자체적으로 투자의 방만성, 원칙을 규정해 부채관리 원칙을 수립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정상화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安신당 명칭 '새정치연합'

오늘 창당 발기인대회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가 신당 명칭을 '새정치연합'으로 결정했다.

새정추 금태섭 대변인은 16일 "국민 공모 절차를 거쳐 당명을 정했다"면서 "내일 발기인대회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많이 알려진 새정치 의미를 담고 합리적 보수와 성찰적 진보를 포괄한다는 의미로 '연합'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로 결정했다"며 "'당'보다는 '연합'을 선호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새정추는 최근 국민 공모를 통해 5100여 건의 당명을 접수해 '새정치연합' 외에 '새정치미래연합', '새정치실천연대', '새정치연대', '새정치당'을 놓고 논의를 펼쳤다.

새정추는 17일 오후 서울 용산 백범기념관에서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연다. 320여 명의 창당 발기인이 참석해 신당 창당의 취지를 밝히고, 당헌·당규 성격의 창준위 규약을 채택해 대표를 선출한다. 이미 내부 협의를 거쳐 안 의원을 중앙운영위원장으로 선임키로 결정했다. /채현준기자

"말로만 서민 이용해서야"

정몽준, 박원순 우회비판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16일 "말로만 서민을 이용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어려운 서민이 중산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청계천 산행을 마친 정 의원은 함께 동반한 기자들에게 6·4 지방선거와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또 친박(친박근혜) 주류가 당내 경선 라이벌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지지한다는 관측에 대해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당내에 친박·친이(친이명박) 얘기가 더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장 도전 공식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20일 여야 의원 40여 명과 중국을 방문한다"면서 "(그 이후) 서울을 위해 무엇을 할지 생각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3일 국회 한중친선협회 등과 함께 중국 상하이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민준기자

물감처럼 확산되는 검은 기름띠 부산 화물선 기름 유출사고 이틀째인 16일 남외항에서 유출된 검은 기름띠가 마치 물감을 풀어놓은 듯 해류를 따라 확산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유출기름 237㎘…여수보다 훨씬 많아

"연안 유입 가능성은 작아"

15일 오후 2시께 부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유류공급선과 화물선 충돌사고로 바다에 유출된 기름이 237㎘ 정도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최근 여수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사고 때 해상에 유출된 양(164㎘)보다 훨씬 많은 양이다.

1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과 해경에 따르면 전날 부산 남외항 선박 묘박지에서 라이베리아 국적의 8만t급 화물선 '캡틴 방글리스'호와 이 배에 기름을 공급하던 460t급 유류공급선 그린플러스호가 높은 너울 파도 탓에 충돌했다.

부산 앞바다 화물선 충돌 사고

사고 당시 화물선에는 1400㎘ 정도의 벙커C유가, 유류공급선에는 벙커C유 1500㎘가 실려있었다. 이 충돌사고로 화물선 왼쪽 연료탱크 주변에 가로 20㎝, 세로 30㎝ 크기의 구멍이 생겼고, 이곳으로 약 3시간에 동안 벙커C유가 바다로 흘러내리면서 수백m 길이의 기름띠가 형성됐다.

해경은 현재 사고 발생 지점에서 남쪽으로 2.5마일 떨어진 지점에 은색과 흑갈색 오염군이 분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자체 경비정 49척과 해군, 소방, 민간업체 등에서 지원받은 선박 74척과 항공기 4대를 동원, 이틀째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다. /배성준기자

운전면허증 발급지역 표시 없앤다

경찰이 고질적인 지역감정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증의 지역 표시를 없애기로 했다.

경찰청은 16일 운전면허증에 표시되는 정보 중 면허 번호에 들어 있는 발급지 표시를 지우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 여권과 함께 신분증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발급지 정보가 포함돼 있어 지역감정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국민대통합위는 지난해 10월 '국민대통합 국민제안 공모전'을 열어 운전면허 지역 표시 삭제 제안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2004년 자동차 번호판의 지역 번호를 폐고 전국 번호판 제도를 도입한 것 역시 지역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고려가 일정 부분 작용했다.

경찰은 새로운 면허증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새로 발급되는 면허증부터 차례로 교체할 방침이다. /윤다혜기자

이집트 국경 폭탄테러… 한국인 4명 사망

이집트 동북부 시나이반도에서 16일(현지시간) 관광버스를 겨냥한 폭탄 테러로 한국인 4명이 숨졌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사고는 폭탄을 실은 차량이 관광 버스와 맞부딪히면서 일어났고 소식통은 전했다.

버스에는 시나이 반도 중부의 그리스 정교회 수도원 유적지를 둘러보고 온 한국인 관광객 33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선옥기자 [illegible]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인디언 최후의 전사 제로니모 사망

1909년 2월 17일, 80세 아파치 최후의 전사 제로니모가 미국 오클라호마 실 요새에서 숨졌다. 그의 본명 고야슬레는 '하품하는 사람'이다. 멕시코 군의 습격으로 아내와 세 아이, 어머니를 잃은 뒤 복수의 전사로 나선 제로니모는 신출귀몰 멕시코 군과 미 기병대를 유린했다. 여러 차례 체포되기도 했으나 탈출에 성공하는 등 명성이 높아졌지만 1886년 마침내 미 기병대에 체포돼 투쟁은 막을 내렸고 끝내 미국에 동화된 제로니모는 역사 뒤로 사라져갔다.

"한·일정상회담 사실무근"

"내달 성사 가능성" 日언론 보도에 청와대 "어떤 논의도 이뤄지지 않아"

청와대는 15일 "일본 정부가 다음 달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때 한·일정상회담을 하자고 한국에 타진할 방침이며 일본 정부는 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보도를 정면으로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한·일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역사 교과서 문제 등 두 나라 사이에 만들어가야 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다"며 "현재 사전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정상회담과 관련된 그 어떤 토의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3월 24일부터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는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전에 한·일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회담과 관련된 요청은 상대방(일본 정부) 자유이지만 성사 가능성은 사실무근"이라며 "현재 준비가 돼 있지 않고 토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illegible]기자

'또 큰눈 오기 전에…' 육군 제11사단 기갑수색대대 장병이 16일 기상관측 이래 최고 적설을 기록한 강릉시 골목길 제설작업을 벌이고 있다. 기상청은 17일 오후 강원 동해안 지역에 20cm가량 눈이 더 오겠다고 예보했다. /연합뉴스

폴리텍대 부산캠퍼스 학위수여식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학장 도재원)는 지난 14일 모진 대학 대강당에서 제13회 학위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에는 내외빈과 졸업생 및 학부모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기능기술자과정 372명, 기능장과정 61명에게 산업학사 학위 및 졸업증서를 각각 수여했다.

입학이 곧 취업 '보증수표'

대한상의 부산인력개발원 18년째 취업률 100%에 육박
현장기술 중심 교육에 국비 지원 | 26일까지 신입생 모집

대학 간판만을 믿는 시대는 지났다. 지금 기술로 취업 전선에 승부수를 두는 교육기관이 있어 화제다.

부산 남구 용호동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이 바로 그곳.

이 기관은 개원 이래 18년째 100%에 육박하는 높은 취업률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부산인력개발원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 맞춤형 기술인력을 양성·공급하기 위해 1991년에 정부에서 설립됐고, 1994년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업훈련기관이다.

최근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부산인력개발원의 지난 해 상반기 종료 과정 중 자동화제어시스템, 자동화시스템정비 등 2개 과정이 100% 취업률을 달성했다. 또 CNC공작기계, CNC선반 등 2개 과정이 90% 이상 취업률을 기록했다.

개발원은 최근 2년간 300% 이상의 구인 요청에서도 94.46%의 높은 취업 실적을 달성하고 있다. 입대나 진학을 희망하는 졸업생을 제외하면 이미 취업에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 기관은 현재 ▲컴퓨터응용기계 ▲컴퓨터응용설계제작 ▲산제품형상디자인 ▲자동화기계 ▲자동화시스템제어 등 5개 학과가 개설돼 있다. 교육비는 전액 국비로 진행되며, 매월 20만원의 훈련장려금도 지급받게 된다. 과정은 이론 30%, 실습 70%로 구성해 현장실습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며, 강사진은 10년 이상 현장 경력을 가진 실무자로 구성됐다. 특히 2010년, 2011년 2년 연속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평가 A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개발원 관계자는 "교육과정이 현장 기술 중심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교육생들이 취업 시 업무에 바로 투입될 수 있어서 기업에서도 부산인력개발원 출신을 선호한다"면서 "교육비는 물론 실습비, 식비, 기숙사까지 모든 비용을 국비로 지원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업 준비생들에게 인기가 좋다"고 말했다.

교육생들이 CNC선반을 이용한 기계가공 실습교육을 받고 있다. /부산인력개발원 제공

또 "최근에는 청년층의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미취업 학력자의 지원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작년에 입학한 학생 중에는 대학을 졸업했거나 중도에 대학을 포기하고 지원한 학생이 전체 68.3%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인력개발원은 오는 26일까지 취업교육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기계, 전기, 전자 분야의 1년 및 2년 과정으로 3월 5일 시작해 12월 말에 교육을 이수하며,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후 취업하게 된다. 지원 자격은 만 15세 이상의 미취업자로 홈페이지(http://ps.chamhrd.net) 및 전화(051-626-4260)상담을 통해 교육과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정하균기자 hk@metroseoul.co.kr

해운대 숙박업소 3년새 63개↑

1월말 299개 … 모텔 급증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해운대의 숙박업소가 3년여 만에 63개가 늘어나는 등 급증하는 추세다.

싼 숙박 관광객을 겨냥한 게스트하우스가 많이 들어서기도 했지만 모텔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 해운대구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15일 해운대구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현재 숙박업소는 299개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말(236개)보다 26.7%, 63개가 증가한 것이다. 또 최근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에 일반호텔 신축 공사가 잇따르고 있다. 늘어난 숙박업소의 절반가량은 게스트하우스로 파악됐지만 모텔 신축이 대세를 이뤘다.

이 때문에 관광 일반호텔과 콘도는 전체의 10.7%인 32개에 불과하고 모텔은 200개를 육박하는 실정이다.

해운대구는 이에 따라 2012년부터 모텔을 포함한 중저가 숙박업소 가운데 우수 업소를 선정, 시설개선 사업비를 지원해 안내데스크를 개방형 구조로 변경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해운대구는 또 외국인과 비즈니스맨이 저렴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호텔이라는 뜻으로 우수 업소를 '포앤비텔(FOR&B TEL)'로 지정해 홈페이지와 관광 안내 책자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모텔 3개를 호텔로 전환했고 모텔 1개의 시설을 호텔 수준으로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해운대구의 한 관계자는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모텔 천국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건전한 숙박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들에 107억 배상"

부산저축은행과 계열 은행의 후순위채권 피해자들이 은행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이언규)는 14일 강모씨 등 280여 명이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 다인 성도 등 회계법인, 금융감독원,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총 107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부산저축은행은 74억2000만여 원, 부산2저축은행은 33억5000만여 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두 은행의 배상금 107억7000만여 원 중 회계법인 다인과 성도도 이들에게 각각 22억7000만여 원과 4억7000여만원을 분담해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은행들과 임직원, 회계법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금융감독원과 국가,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들 은행이 분식회계를 통해 회사의 실제 재무 상태를 은폐하고, 후순위채권 투자자에게 중요한 고려 사항인 재무 건전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부산銀 대학생 홍보대사 모집

부산은행이 지역 대학생들과 소통하고 꿈과 열정을 함께 가꿔나갈 '제9기 부산은행 대학생 홍보대사(BS FRIENDS)'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부산·울산·경남지역 공시 모집을 통해 선발된 제9기 대학생 홍보대사는 4월 초 발대식을 시작으로 조별로 나뉘어 부산은행 관련 홍보 활동 및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홍보대사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모집 기간은 2월 17일부터 3월 2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70명 내외다. 신청은 부산은행 문화포털 BS팝부산(www.popbusan.com)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정하균기자

진주서 승용차·버스 3중 충돌 … 4명 사상 16일 오전 6시 50분께 경남 진주시 영천면 도이마을 인근 국도에서 렌터카 승용차와 그랜저 승용차, 시외버스가 3중 충돌했다. 이 사고로 그랜저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연합뉴스

서구 구인·구직 개척단 운영

올 1억2000만원 사업비 확보 … 직업상담사 6명 채용

부산 서구가 올해부터 현장 밀착형 '구인-구직 개척단'을 운영하는 등 구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 벗고 나선다.

16일 서구청에 따르면 올해 총 1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한편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를 중심으로 6명의 직업상담사를 신규 채용해 이달부터 현장에 투입했다.

구인-구직 개척단은 우선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노인 일자리사업 등 재정 지원 일자리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 및 직성 상담을 실시해 취업 의지를 고취·알선하는 일을 추진한다.

또 구인들을 대상으로 취업 상담에서 직업훈련기관 연결, 구직 등록, 기업 알선, 서류 작성 및 접수, 동행 면접, 취업 후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현장 밀착형 구직 지원 및 찾아가는 취업 연결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구청 민원실과 서구취업정보센터(서관동 4층), 서대신1동, 남부민2동, 암남동 외에 관내 도시철도역과 복지관, 대형마트 등 주요 시설 등에서 이동 상담창구를 운영키로 했다고 구 측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 구덕실내체육관에서 구인·구직박람회를 개최하고 관내 각종 행사와 축제 현장에서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관내 20인 이상 사업체 150여 개를 대상으로 채용 계획을 조사해 구직자를 알선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다양한 기업체 지원정책 홍보와 적합 기업을 발굴해 일자리를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구인 애로 기업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 및 컨설팅 등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하균기자

국제관광도시 밑그림 나왔다

부산시 지역색 상품 개발 등 5대 전략 담은 계획 확정

부산시가 올해 매력 있는 국제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돛을 올린다.

부산시는 지난 14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관광진흥위원회를 열고 5대 전략과제, 총 62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2014 관광진흥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안에 담긴 5대 전략은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을 비롯해 크루즈 등 해양관광 활성화, 관광 인프라 구축, 고품질 관광 서비스 제공, 국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 강화 등이 포함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범정부 및 민·관 협업으로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한 정부 대책이 마련되고 정부의 '5대 유망 서비스업종'에 관광이 포함되는 등 정부의 관광산업 육성 정책에 맞춰 획기적인 관광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분야별 전략과제와 세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전략 1 지역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

이는 위해 지난해 11월 개통한 전국 최초의 도개다리인 영도대교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 관광상품 개발, 인근 지역인 영도구 봉래동 어묵전시체험관 관광 상품화, 부산의 원도심권 근대 역사 골목 투어 등 원도심권을 중심으로 한 관광상품 개발과 낙동강 자연환경 투어 및 사찰 문화체험 코스 개발, 기업투 신혼여행길 관광 상품화, 낙동강 생태 관광프로그램 운영, 낙동강 생태탐방선 운항 등 서부산권을 중심으로 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전략 2 크루즈 등 해양관광 활성화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제 크루즈 및 연안 크루즈 등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제 크루즈 유치 증대(2013년 109회→2014년 134회) ▲크루즈 중국어 관광통역 안내사 양성 ▲아시아 최대 국제 크루즈 박람회('Seatrade Cruise korea in Busan 2014') 개최 ▲용호만 연안 크루즈 활성화 사업 추진 ▲낙동강 생태탐방선 운항 등 7개 과제를 마련했다.

전략 3 관광 인프라 확충

머물고 싶은 선진형 관광도시 부산에 걸맞은 인프라 확충을 위해 황령산 야경관광 인프라(쉼터 및 전망데크 조성, 전망타워 건립 검토)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 삼락생태공원 오토캠핑장 조성, 우수한 전통문화 체험을 위한 '내원정사 템플스테이'도 건립한다.

아울러 영화의전당 일대와 마린시티, 해운대해수욕장에 산재돼 있는 영화 관련 시설과 촬영지를 하나의 존으로 묶는 '해운대 영화의 거리' 조성, 달맞이길 보도 존 조성 등 4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략 4 고품질 관광 서비스 제공

최근 늘어나는 개별 관광객들의 인터넷 관광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공항 등 관문 지역에 선불식 데이터카드를 장착한 태블릿형 스마트폰을 대여해주는 '스마트 관광시스템 구축'과 '스스로 관광 코스를 짜게 하는 사늘형 웹·앱 개발', 전국 최초 후불제 부산관광카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관광객의 불만사항 해소 및 관광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 건의한 '부산관광경찰대'가 9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며, 관광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민간 시티투어 도입 추진 등 17개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전략 5 국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 강화

부산을 흡인력 있는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 국가별 차별화된 유치 전략을 마련한다. 관유 열풍을 접목한 관광상품 개발,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 여건을 조성한다.

특히 부산관광협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관광서비스 인력(전에 인력고용센터(구직·구인자 매칭 공센터) 운영을 유도할 계획이다.

더불어 부산관광공사 등과도 활발한 네트워킹으로 국내·외 외국인 유치에 주력하기 위한 19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황치근기자 jhk@metroseoul.co.kr

주만석 경남정보대 총장 취임

학교법인 동서학원 경남정보대학교는 지난 14일 오전 대학 미래관 글로벌컨벤션홀에서 내외빈과 교직원, 학생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 9대 총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주만석(사진) 제9대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대학 구조 개혁이라는 큰 소용돌이 속에 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 1등 전문대학의 자리를 고수하겠다"며 "이를 위해 지표 관리와 학과 구조조정은 물론,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우수 신입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상장사 66% 순익 감소

부산지역 상장기업 세 곳 가운데 두 곳이 지난해 당기순이익 감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부산지역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32개사의 2013년 결산보고서 결과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감소한 기업은 21개사로 65.6%에 달했다.

이들 기업의 순이익 감소율은 평균 267.1%로 집계됐다.

32개 기업 중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기업 16개사 중에서는 12개 기업이 순이익 감소를 기록했다. 평균 감소율도 338.8%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이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 부산지역 주요 업종인 조선과 자동차 철강 등 업종에서 부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이들 기업 중 13개 기업(40.6%)은 부채가 전년 대비 증가세를 기록했다. 평균 부채 증가율은 27.9%였다. /연합뉴스

급경사지 720곳 붕괴위험 조사

부산시는 오는 17일부터 3월 말까지 6주간 3400여 명을 투입해 급경사지 720곳에 대한 일제 조사와 해빙기 취약지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붕괴재해 위험지역을 미리 살피고 예방 및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부산지역은 최근 3년간 해빙기, 집중호우, 태풍 내습, 암반 풍화 등으로 급경사지 126곳이 붕괴돼 174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뉴시스

봄소식 전하는 버들강아지 절기상 우수를 사흘 앞둔 16일 경남 함양군 안의면 용추계곡에서 버들강아지가 고개를 내밀며 봄소식을 전하는 가운데 나들이 나온 가족이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초량왜관 등대 일본보다 190년 빨라

1678년 설치 사료 발견

부산해양항만청은 국내 최초로 여겨졌던 1903년 인천 팔미도등대의 역사보다 무려 225년, 일본 등대 역사보다도 190년이나 빠른 1678년 조선시대 초량왜관의 등대 관련 사료를 발견했다고 15일 밝혔다.

1678년경에 설치된 초량왜관은 신라인의 당나라 집단 거주지역인 신라방과 같이 조선에서 직접 부지를 조성한 일본인의 집단 거주지역으로서 범파제에 근대식 등대시설을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고지도를 다수 확인했다고 항만청은 설명했다.

부산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이는 111년 전 대한제국 말기와 일제강점기 시대를 거쳐 대한민국 등대 역사가 시작됐다는 기존 연구를 뒤집는 획기적인 발견"이라며 "우리나라 등대의 역사가 일본 제국주의에 굴복한 불빛이 아니라 근대사의 자주적 역사로서 우리나라 항로표지와 부산항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발견이라는 점에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정하균기자

초량왜관 관련 부산항 고지도 어가도. /부산해양항만청 제공

market index <14일>

코스피	코스닥
1940.28 (+13.32)	522.58 (+0.73)

금리	환율
2.84 (변동 없음)	1060.00 (-3.80)

LG유플 'Share하루' 출시

LG유플러스는 사용자의 일정과 사진,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를 활용해 클라우드 기반으로 일기를 저장하는 'U+Share하루' 앱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U+Share하루는 스마트폰에서 일정을 입력하면 일기로 자동 변환돼 사진, 동영상, 문서를 첨부하고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다.

특히 기존 일정 관리 서비스와 달리 일정을 수행하는 동안 생성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추가해 일기로 만들 수 있어 새로운 유형의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작성한 일기를 친구들과 함께 공유해 댓글을 달 수 있어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개인형 SNS 서비스 성격도 갖고 있다. /김유리기자

로또복권 제585회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6	7	10	16	38	41	4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1,620,581,334
2등	5개 숫자 + 2등 보너스 숫자	54,019,372
3등	5개 숫자 일치	1,590,151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metro |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용산구 신흥로 2가 1-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편집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인호
부산지사장·직대 김덕권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853-2100
배차센터 02)721-9867
2002년 5월 31일 창간 / 등록번호 서울가00006

국민·롯데·농협카드 오늘부터 3개월 영업정지

KB국민, 롯데, NH농협카드에 대한 영업정지가 17일부터 3개월간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번에 고객정보를 유출한 3개 카드사에 대해 중징계할 방침이다.

이들 3개 카드사들은 앞으로 3개월간 공익 목적을 제외한 모든 카드의 신규 발급이 중지된다.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의 신규 약정, 카드슈랑스, 통신 판매, 여행 알선 등 부수 업무도 제한된다.

기존 고객의 카드 사용은 계속되며 약정 한도 내에서 현금서비스나 카드론도 이용할 수 있다.

금융 당국은 또한 이들 카드사 전·현직 최고경영자에 대해 해임을 권고할 방침이다. /박상진기자

그냥 직원도 '억' 소리 나는 연봉

금감원 '낙하산 단골'·거래소 평균 연봉 1억 훌쩍…금융공기업 부조리 도마위

국내를 대표하는 금융 공기업의 각종 부조리가 도마에 올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주요 금융 공기업의 방만경영과 불공정 관행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될 여지를 보이지 않는다. 대표적인 불공정 관행으로 ▲산하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 ▲직원에 대한 과도한 복지 ▲낙하산 인사 등이 꼽힌다.

금융감독원은 계속되는 낙하산 인사로 항상 구설에 올랐다. 최근 물러난 수출입은행장을 비롯해 손보협회장, 생보협회장, 보험개발원장 등 산하 협회장 및 은행, 보험, 증권사의 감사나 사외이사 자리는 상당 부분 금감원 국장급 이상 인사들이 퇴직 후 거쳐가는 곳으로 여겨지고 있다.

과도한 기관장의 연봉과 보수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공기관의 관계자는 "기관장이 무슨 재벌 최고경영자(CEO)도 아니고 너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며 "연봉은 3억원이 넘는데 판공비는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 최고급 자동차에 운전기사가 딸려가고 비서는 물론 관사도 원하면 지원해준다. 가끔은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비난했다.

이들 금융 공기업 직원의 보수나 복지 수준도 항상 도마 위에서 노는 주제다. 직원들의 평균 연봉 수준이 상당한 수준이다. 금융 공기업의 지난해 직원 평균 연봉은 8700만원으로 대기업 직원의 평균 연봉 5000만~7000만원 보다 높다.

한국거래소 평균 연봉은 1억1400만원으로 공공기관 중 가장 높았다. 이어 한국예탁결제원 1억100만원, 한국투자공사 9800만원, 코스콤 9500만원 등 대부분이 평균 연봉 1억원에 달했다.

최근 금융사들이 실적 하락과 영업환경 악화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연봉을 동결하는 등 고통을 겪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들 금융공공기관의 연봉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최근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연봉을 스스로 삭감하고 금융지주사 회장과 금융사에 연봉을 줄일 것을 지시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그러나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이마저도 남의 나라 이야기다.

급여만 많은 게 아니라 각종 명목의 복리후생 지원도 많다. 공공기관 통합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지난해 125억원을 복리후생비로 썼다. 이 중 선택형 복지 지원 비용으로 64억원을 사용했다. 행사지원비와 문화여가비로 4억원을 지급했다.

기술신용보증기금도 40억원을 복리후생비로 지출했다.

/박상원기자 sy@metroseoul.co.kr

삼성그룹 시간제 2차 채용

삼성그룹이 오는 24일부터 시간제 근로자 2차 채용을 시작한다. 2차 선발에서도 일과 가정의 양립이 필요한 이들을 채용할 예정이며 개발지원과 환경안전 직무 채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회사별로 삼성전자 2700명, 삼성디스플레이 700명, 삼성엔지니어링·삼성중공업·삼성물산 각각 400명, 삼성생명 300명을 뽑는다.

/김태균기자

한진 '세계 최대 연속 콘크리트 타설' 기네스북 등재 도전 15일(현지시간) 오후 로스앤젤레스시에서 열린 한진그룹 윌셔 그랜드 호텔 콘크리트 타설 기념행사에서 조양호(왼쪽 넷째) 한진그룹 회장과 에릭 가세티(왼쪽 다섯째) LA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윌셔 그랜드 호텔 프로젝트 부지에 투입될 콘크리트의 무게는 총 8200만 파운드(약 4만2330t)로 레미콘 2120대 분량에 달하며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연속 콘크리트 타설로 기네스북에 등재될 예정이다. /뉴시스

상반기 공채 시작전 탐나는 인재 모시기

본격적인 상반기 공채가 시작되기 전 인재를 확보하려는 기업들이 줄을 잇고 있다.

16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미디어잡에 따르면 남서울대학교는 19일까지 일반 행정직 프로그램 운영 분야의 직원을 모집한다. 지원 요건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로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소지자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 복지 또는 회계 분야 경력 2년 이상 인자와 인근 지역 거주자는 우대한다.

대동도 20일까지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지원 분야는 연구기획, 기구설계, 전자설계, 개발 분야 등이다. 초대졸 이상, 병역필 및 면제자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

미디어플렉스 역시 한국영화팀 배급팀 해외사업팀에서 일할 경력직을 21일까지 모집 중이다.

KPX케미칼도 26일까지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회계의 경우 상경계열 전공자, 영업은 전공 불문, 공무는 기계공학 전공자, 연구는 화학·화공·고분자 전공자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

/김국방기자 kim@...

발바닥, 발가락 통증?
더 이상 참지마세요!

발바닥에 껌이 붙은 것처럼 먹먹하거나, 발을 잘못 딛는 경우 발가락에 찌릿하게 전기통하는 느낌이 든다면 지간신경종(몰톤씨신경염)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아무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발바닥이 아프기 시작하는 지간신경종은 처음에는 발가락이 저려지는 부분인 발바닥의 앞쪽에 무언가 이물질을 한 겹 붙여놓은 것처럼 느낌이 둔감하거나 마치 모래를 밟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감각이 이상하기도 한다. 가만히 있을 때에도 발바닥 앞쪽이 화끈거리고 심하면 통증마저 느껴진다고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다.

병원에서 엑스선을 찍어보고, 허리가 원인인가 싶어 허리 MRI도 촬영하고, 혈관문제인가 싶어 혈관조영술을 해봐도 별다른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보니 증상은 점점 심해지고,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는 것은 물론 걷는 것마저 힘들어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게 된다.

현대인의 발은 끊임없이 혹사당하고 있다

발은 신체의 모든 뼈 중 5분의 1이 몰려 있고 평생토록 지구의 4바퀴 반에 해당하는 거리를 움직인다. 최근 발바닥의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라는데 통증은 곧 질병의 신호. 발의 작은 통증 하나가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의 고통을 주기도 한다.

예쁜 '발-작은발' 이라는 통념이 아직도 남아있다. 특히 여성들은 발이 크면 미련해 보일까봐 발이 작고 날씬해 보이는 신발을 선호하는데 이런 신발을 애용하는 여성들은 발의 앞부분인 중족골과 발가락 신경에 생기는 지간신경종을 주의해야 한다.

지간신경종은 발가락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과도한 압박을 받거나 발가락 사이에서 눌려 붓는 질환을 말한다. 굽이 높은 구두를 신는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굽이 높은 구두를 신으면 발가락 신경과 주변 조직에 과도한 자극이 가해져서 몸무게 전체의 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발바닥의 앞쪽 부위가 저리거나 이물감이 느껴지는 증상으로 중년 이후 분들에게 흔히 발견된다. 가끔 발바닥 통증을 허리쪽의 이상 때문인 것으로 오인해 병원으로 오는 환자도 제법 있다.

이제 멀리 가지 않더라도 부산에서도 무지외반증과 지간신경종 등의 발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

부산에서도 지간신경종, 무지외반증 치료해

부산에서 지간신경종, 무지외반증 등 족부관련질환을 전담하여 케어하는 족부클리닉을 운영중인 대한민국정형외과 이준호 원장은 "몸을 지탱하는 받침대인 발은 26개의 뼈와 33개의 관절로 이루어져 오묘하게 움직이지만 어느 한 곳만 이상이 생겨도 보행에 필요한 균형을 잃고 연쇄적인 통증을 일으키게 된다"며 "발가락은 한 번 변형되면 다른 발가락을 변형시키고 무릎, 허리 관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변형과 통증이 악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손과 발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손가락의 움직임이 중요한 손과 날리 발은 체중을 지탱하여 걷는 기관이기 때문에 보행을 편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어 치료해야 하며, 발이 불편하면 보행이 틀어지므로 무릎, 엉치, 허리에도 무리가 갈 수 있다.

디스크, 히지정맥류, 혈관장애 등으로 오인, 오랜기간 고생하는 경우가 많아

지간신경종은 매우 다양한 감각이상을 호소한다.

보통 가만히 있을 때는 거의 증상이 없다가 걷거나 딱딱한 바닥에 닿으면 발바닥 앞쪽이 화끈거린다. 특히 발가락과 발가락으로 연결되는 뼈 사이의 신경 부위에서 가장 많이 느낄 수가 있다. 이 부위는 발바닥중에서 체중의 압박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이다.

마치 껌이 붙은 것처럼 먹먹한 것이 가장 흔한 증상이며, 발을 잘못 딛는 경우 발가락에 찌릿한 느낌이 뻗치고 때론 발이 시리거나 뜨겁다고 호소한다. 특히 상당수가 밤에 발이 저리다고 하는데, 디스크나 하지정맥류, 혈관 장애 등으로 오인받아 MRI나 혈관검사 등을 해보지만 오랜 기간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신경을 잘라내지않고, 절골술을 시행, 지간신경종의 원인을 제거한다

대한민국정형외과 이준호원장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후된 지간신경종 자체를 절제하지 않고, 중족골 사이에 끼어서 붓게 된 지간신경의 압박을 감소시켜주는 절골술을 시행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간혹 시술 후 부종이나 동통, 부정유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대한민국정형외과의원의 이준호 원장은 지간신경종의 원인 자체를 제거하는 수술법을 시행하여 수술 부작용을 더 줄이고, 재발을 걱정도 덜어준다. 그러면서 수술은 부위마취로 이루어지며, 의료보험이 적용되므로 환자부담도 덜었다.

대한민국 정형외과 이준호 원장은 오랜 경험과 수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손질환과 발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효과적인 치료와 빠른 회복을 위해 수부클리닉과 족부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어, 고운손과 편안한발을 위한 치료노력에 매진하고 있다.

롱숏펀드 열풍 '해외로'

시장규모 2조 육박·"5조 더 유입" 기대하는 운용사, 글로벌 상품 출시 붐

급변하는 장세에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중위험 중수익 롱숏펀드의 덩치가 2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불어나는 등 올해도 투자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운용사들은 국내를 넘어 해외로 발을 넓힌 글로벌 롱숏펀드도 속속 내놓고 있다.

16일 펀드평가사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4일 현재 롱숏펀드 19개(설정액 10억원 이상)의 순자산은 1조8400억원으로 지난해 초 1000억원 규모에서 불과 1년 새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시장을 선점한 펀드로 자금 쏠림 현상이 심했다. 올 들어 '마이다스거북이90증권자투자신탁 1(주식)'과 '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50증권자투자신탁(주식)'에 각각 1650억원, 1080억원이 유입됐으나 나머지 펀드에는 자금 유입폭이 1억~100억원 안팎에 그쳤다. 동양증권에 따르면 운용 규모가 가장 큰 곳은 트러스톤자산운용이며 마이다스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이 뒤를 이었다.

롱숏펀드는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은 매수(롱·Long)하고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 주식은 공매도(숏·Short)하는 전략으로 시장 등락과 상관없이 수익을 추구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내 증시가 박스권 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위험·중수익 상품 중에서도 롱숏펀드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이에 국내 금융사들은 롱숏펀드의 운용 기반을 해외시장으로 확대하려고 시도 중이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13일 한국·중국·일본 등 3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어시아포커스 롱숏펀드'를 출시했다. 한·중·일에 대한 투자 비중이 80%이며 나머지 20%는 미국, 유럽, 기타 아시아 등 글로벌 지역에서 운용된다.

신한금투 측은 "한·중·일의 증시를 합치면 시가총액이 1경원 수준"이라며 "미국·유럽 시장과 견줄 만한 규모가 된다"고 전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뒤늦게 롱숏펀드 시장에 뛰어든 KB자산운용은 다음달 초부터 'KB한·일롱숏펀드'를 공모할 계획이다. 신한BNPP자산운용도 3월 출시를 목표로 아시아 10여 개국을 대상으로 한 롱숏펀드를 준비 중이다.

롱숏펀드 터줏대감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늦어도 오는 4월 한·일 롱숏펀드를 선보일 계획이다.

하나UBS운용의 경우 지난달 말 업계 처음으로 해외 종목을 편입한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하나UBS 글로벌롱숏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증시를 대상으로 한다.

김후정 동양증권 연구원은 "최근 3년간 중위험 중수익 상품인 자문형 랩, 해외 채권펀드에서 9조원 가까운 돈이 빠져나갔고 주식형 펀드에서는 26조원이 이탈했다"며 "이들 상품의 투자자들이 롱숏펀드로 옮겨간다면 추가로 5조원 넘는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현정기자 hjkim01@metroseoul.co.kr

올레tv 소치 특집관 보며 화이팅!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을 맞아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모델들이 올레tv의 소치 올림픽 특집관을 선보이고 있다. KT의 IPTV 서비스 올레tv가 운영하는 이 특집관은 실시간으로 올림픽 경기 중계와 주요 경기 하이라이트 영상 및 각종 부가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다. /연합뉴스

윤증현 '차기 한은총재의 자격' 언급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중앙은행의 경우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철학도 있는 사람이 (한국은행 총재로) 와야 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한국은행 총재 자격이 영어 잘하고, 국제 감각과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는 등 여러 말이 나오지만 중앙은행 총재로 어떤 소신이 있는지 등의 본질적인 문제가 소홀히 되는 게 아쉽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의 청년(15~29세) 고용률을 보면 지난해 11조원 가량의 돈을 부었지만 39.7% 정도를 기록했다"며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일자리를 찾는 사람만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엄밀히 청년의 절반 이상이 취업을 못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세균기자 ksg@

금융가 사람들

아베와 한 배 탄 엔화… 엔저는 '제2 메이지 유신'

■ 이트레이드 오동석 연구원

지난해 약세를 거듭하던 엔화는 올 들어 신흥국 통화가치 급락에 다시 안전자산으로 떠올랐다. 급변하는 글로벌 장세에 엔화 가치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일본 펀드 등에 투자한 이들에게 혼란을 안겨준다.

오동석(사진)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최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엔화는 경제적으로 안전 통화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위험한 통화"라며 "엔화 방향은 정치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연구원은 "향후 통화 흐름의 열쇠를 쥔 지난 9일 도쿄 도지사 선거 결과가 아베 정권의 지지를 받은 여당 측 후보의 압승으로 끝났다"며 "일본 보수 내 아베 정권에 반대하던 기류가 완전히 정리되면서 아베 정권의 인적 장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오 연구원은 "불황으로 '잃어버린 20년'을 보낸 일본에서 아베 정권이 부상하지 않았다면 정부 부채가 수년 안에 GDP 3배를 넘으면서 걷잡을 수 없이 검기 악화를 겪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오히려 아베 정권이 엔화의 급락을 막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 연구원은 엔화의 현 상황을 "제2의 메이지유신인 셈"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도쿄 도지사 선거 이후 일본 보수 내 균열이 정리된 모습은 과거 19세기 친막부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동맹을 맺은 메이지 신정부군을 연상케 한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아베 정권과 엔화의 향방이 일본 경제에 있어 중요한 키워드로 등극했다. /김현정기자

송파대로·마곡지구 '新 분양불패' 신화

서울 동남권·서남권 양대 '핫 플레이스'… 대형개발 호재·입지 주목

수도권 분양 시장의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 동남권과 서남권을 대표하는 송파대로 인근 대와 마곡지구가 '핫 플레이스'로 뜨고 있다. 이들 지역은 대형 개발 호재가 산적해 있을 뿐 아니라 뛰어난 입지 여건까지 갖춰 올해 분양 시장 최대어로 평가된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잠실대교에서 서울지하철 8호선 복정역을 잇는 왕복 10차선 도로 '송파대로'를 중심으로 대규모 개발사업 8건이 동시에 추진 중이다. 동남권유통단지(가든파이브), 장지택지지구, 제2롯데월드,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문정법조 미래형업무단지, KTX 수서역 등이 그 주인공.

하나도 어려운 사업들이 한꺼번에 이뤄지면서 송파대로 인근으로 분양된 아파트, 오피스텔 등은 마감 릴레이를 벌이고 있다. 작년 12월 송파구 문정지구 2블록에 공급된 '엠스테이트' 오피스텔이 100% 계약 완료됐고, 위례신도시 내 분양 단지들도 완판 행진과 함께 수천만원의 프리미엄까지 형성된 상태다.

서울 동남권에 송파대로가 있다면 서남권에는 마곡지구가 있다. 마곡지구는 강서구 마곡동과 가양동 일대 약 336만㎡ 부지에 미래지식 첨단산업단지와 국제업무지구, 배후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는 대형 도시개발 프로젝트다. 판교테크노밸리 5배 규모로 이미 LG사이언스파크와 대우조선해양의 입주가 확정됐다.

특히 3조원가량 투자되는 LG사이언스파크에는 2만여 명의 근무 인력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철 5호선 발산역·마곡역, 9호선 양천향교역 신방화역이 지나며 올 하반기 공항철도 마곡나루역이 개통돼 도심권 접근성 향상이 기대된다. 덕분에 지난해 11월 현대건설이 분양한 '마곡 힐스테이트 에코' 오피스텔이 계약 일주일 만에 마감되기도 했다.

이같은 완판 기록을 이어가기 위한 신규 분양도 활발하다. 우선 현대엠코가 위례신도시 휴먼링 내 A3-6a블록에서 '엠코타운 센트로엘'을 분양한다. 전용면적 95~98㎡, 총 673가구로 이뤄졌니. 오는 19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20일 1·2순위, 21일(금) 3순위 신청을 받는다.

삼성물산·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오는 10월 송파구 가락동 479번지 일대 가락시영 재건축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전체 9510가구의 신도시급 단지다.

마곡지구에서는 대우건설이 4월 B5-2블록에서 전용면적 23㎡, 552실로 구성된 '마곡 푸르지오 시티'를 공급한다. LG사이언스파크 부지와 한 블록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이외 일성건설이 마곡지구 C1-3·C1-6블록에 '일성 트루엘' 오피스텔 600실을, 현대엠코가 8월 A13블록에 '엠코타운' 아파트 1205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박선옥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SKT의 석박사들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로!" SK텔레콤의 석·박사급 실무자 30명이 24일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정보통신 전시 콘퍼런스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4'에 참가한다. 이번 MWC에 참석하는 SK텔레콤 석·박사들은 다양한 글로벌 사업 협력을 추진하고 전시·콘퍼런스에 참가해 선도적 기술과 새로운 서비스를 직접 알리는 한편, 전 세계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트렌드를 파악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SK텔레콤 제공

KT 속속 자리잡는 '황의 사람들'

황창규 KT 회장이 KT 계열사 인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KT 주요 계열사 대표들에게 사임을 통보하면서 계열사 대표 물갈이에 들어간 황 회장은 KT렌탈, KT텔레캅, KT ENS 등 잇따라 신임 대표를 선임하며 새로운 체계로의 변화를 모색하는 모습이다.

앞서 KT렌탈은 13일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고 표현명(사진) 전 사장을 후임 대표로 선임했다.

표 사장은 지난해 10월 이석채 전 KT 사장이 사퇴한 뒤 황창규 회장의 공식 취임 이전까지 KT 회장 직무대행을 맡은 바 있다.

최근 3000억원대의 대출사기 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KT ENS의 사장 자리에는 권순철 전 KT 비서실장이 선임됐다. KTIS에는 맹수호 전 KT커머스 사장, KT커머스에는 김상백 전 IT본부장이 대표로 승진했다. KT텔레캅은 최영익 KT링커스 사장이 맡고, KT스포츠단장은 정성환 KT텔레캅 사장이 맡게 됐다.

KT파워텔은 엄주욱 전무가 이번에 사장으로 승진하며 대표 업무를 수행 중이다. /이재영기자 [illegible]

PC 못살린 '윈도8의 소생술'

전작보다 20% 판매 줄어 PC교체 이끌기엔 역부족

전 세계 PC 시장에 드리운 먹구름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구세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마이크로소프트(MS) 최신 운영체제(OS)인 '윈도8'마저 판매 부진에 시달리자 PC 시장은 점차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윈도8은 '실패작'이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최근 MS의 마케팅 책임자인 타미 렐러 수석부사장이 밝힌 윈도8 판매 실적이 기대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이다. 윈도8은 출시 15개월 만에 2억 부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출시 12개월 만에 2억4000만 부 팔린 전작 '윈도7'에 비해 20% 이상 감소한 수치다.

더 큰 문제는 윈도8의 실사용자 수는 더 적다는 점이다. 시장조사기관 넷마켓셰어에 따르면 PC 사용자 중 윈도8이나 8.1을 쓰는 비율은 [illegible]%에 불과하다. 48%가 윈도7을 사용하며 29%는 12년 묵은 윈도XP를 아직도 쓰고 있다.

윈도8이 기대했던 PC 교체 수요를 이끌어내지 못하자 PC 시장은 그야말로 아사 직전이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PC 출하량은 3억1590만 대로 전년 대비 10% 감소했다.

이에 따라 '바이오' 브랜드로 유명했던 소니는 직격탄을 맞고 최근 PC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도 PC 사업 몸집 줄이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IT업계 한 전문가는 "한때 IT 시장을 주도했던 '윈텔(윈도와 인텔의 합성어)' 시대가 점점 저물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기자 [illegible]

삼성전자, 英 다이슨 상대 100억 '청소기 소송'

삼성전자가 영국의 청소기 제조업체인 다이슨을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청소기 '모션싱크'에 대한 다이슨의 근거 없는 특허 소송으로 인해 명예와 신용에 심각한 손해를 입어 이를 배상하라는 취지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다이슨에 대해 영업방해와 명예 및 신용 훼손 등을 이유로 100억원을 우선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다이슨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6~7월 출시한 프리미엄 청소기 모션싱크에 대해 특허 침해를 이유로 영국고등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김태균기자 [illegible]

쏟아지는 웨어러블 기기 '거품?'

IT업계 출시 붐에 "사용률 낮다" "시장 성장 느리다" 한계 지적 잇따라

스마트 팔찌 '업24'를 제작한 미국 회사 조본이 지난 15일 2억5000만 달러(약 2700억원)의 투자를 받아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투자자 명단에 페이스북, 트위터, 스퀘어, 클립보드, 플레이보이 등 유명 기업들이 포진돼 더욱 화제가 됐다.

업24는 스마트폰 앱과 연동돼 사용자가 하루에 칼로리를 얼마나 소모했는지, 잠은 얼마나 잤는지 등의 다양한 건강 정보를 알려준다.

입는 컴퓨터로 통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이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이상 이를 확장할 수 있는 보조기구의 수요도 덩달아 증가할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서 피트니스 부문 판매 1위를 기록한 '피트비트'는 5가지 라인업을 들고 국내에 상륙했다.

이 제품도 업24처럼 일일 활동량과 수면 시간, 이동 거리를 알려주고 체중도 실시간으로 확인토록 한다. 가격이 10만원대 안팎이어서 다이어트를 마음에 두고 있는 소비자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새판된 삼성의 '갤럭시 기어'를 비롯해 소니의 '스마트워치 2', 나이키의 '퓨얼' 등 적지 않은 웨어러블 기기가 각축을 벌이고 있다.

웨어러블 기기 브랜드 피트비트의 라인업.

삼성의 경우 이르면 다음달 갤럭시 기어2를 선보일 예정이며 LG전자 역시 2분기 내 '라이프밴드 터치'라는 스마트 팔찌형 밴드를 공개할 계획이다. 구글의 '구글글라스', 애플의 '아이워치'도 올해 본격적으로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웨어러블 기기는 '보조수단'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생각만큼 미래가 밝지 않을 수도 있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최근 글로벌 IT기업 시스코의 보고서를 인용해 2018년 웨어러블 기기에서 사용되는 데이터가 전체의 0.4%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했다. 즉 입는 컴퓨터가 실제 생활에서 사용되는 빈도가 현저히 낮을 것이란 얘기다.

시장 규모도 빠르게 커지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시장조사업체 IDC의 최근 보고서는 2018년 웨어러블 기기 시장을 300억 달러(약 32조1500억원)가량으로 예상했다. 예상 판매량은 웨어러블 기기 1억7000만 대, 스마트폰 23억 대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얼음 드레스' 입은 미스코리아 16일 서울 광장동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1회 유오웨딩페어'에서 미스코리아 (가운데)씨가 소치 동계올림픽 대표단의 선전을 기원하는 얼음 웨딩드레스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새학기 사회·과학 과목 디지털 교과서 도입키로

다음달 시작되는 새 학기부터 중학교 1~3학년, 초등학교 3~4학년 사회와 과학 과목에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된다.

16일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시·도 교육청이 지정한 약 160여 개 학교에 디지털 교과서를 보급한다.

온라인 전송 방식으로 보급되는 디지털 교과서는 개인용 컴퓨터, 노트북, 휴대전비 등에 내려받아 가정이나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이번에 보급되는 디지털 교과서는 초등학교 3~4학년 사회, 과학 국정 교과서와 중학교 1~3학년 사회1, 과학1이다.

개인용 컴퓨터에는 디지털 교과서 뷰어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에는 디지털 교과서 앱을 설치한 뒤 실행하면 디지털 교과서를 볼 수 있다.

디지털 교과서 본문 내용에 원하는 색상, 두께의 펜으로 쓰고 지우거나 인쇄할 수 있으며, 중요한 내용을 별도 메모장에 저장할 수도 있다. 또한 녹음 기능을 이용해 소리나 음성 설명자료를 저장하는 기능도 탑재됐다.

정부는 올해 160여 개 시범학교 외에 이달 말까지 수요를 조사해 교사와 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디지털 교과서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재영기자 ryh@

겨울 달구는 에어컨 예약판매 전년비 37% 증가 홈플러스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2주간 에어컨 사전 예약 판매율이 전년 사전 예약 동기간 대비 37.8% 신장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매장에서는 LG, 삼성 에어컨 제품 100여 종을 사전 예약 판매 중이며, 상품별 다양한 할인 혜택 또는 상품권 증정 행사도 진행 중이다. /홈플러스 제공

화웨이 '도·감청 우려' 불끄기

자사 장비 보안 논란에 "170개국 사용… 문제 없다"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가 자사 장비의 '보안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미국·한국 등을 중심으로 화웨이 통신장비의 도·감청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화웨이는 전 세계 170여 개국 통신업체에 통신장비를 공급하는 상황에서 타격이 커질 수 있다.

화웨이는 15일 자사 네트워크 장비가 엄격한 품질 및 보안 기준에 부합하고 170여 개국 통신업체가 사용하고 있지만 네트워크 사용 시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화웨이는 특히 통신사 고객은 화웨이 장비에 대해 통신사 각각의 기준에 맞는 구체적인 운영 및 보안 요건에 적합하다는 점을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외신에 따르면 한국이 미국의 안보 우려를 고려해 양국 간 민감한 내용의 교신에는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한국이 민감한 정부 통신 내용의 경우 화웨이 장비가 아닌 다른 통신망을 통하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또 미국의 통신 내용 보호 차원에서 주한미군 기지에 화웨이 장비를 사용·연결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국내에서는 지난해 LG유플러스가 LTE망 구축을 위해 화웨이의 기지국 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혀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미국 정부는 화웨이 장비가 한·미 간 통신 내용을 도·감청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김태균기자 ksat@

한화그룹 첫 장애인 공채 실시

한화그룹(회장 김승연)이 그룹 창립 이후 최초로 장애인 공개 채용을 실시한다. 일반 공채에서 장애인을 우대하거나 계열사별로 특별 채용 등을 통해 장애인을 채용해 왔지만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공개 채용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공개 채용은 학력·나이·장애 등급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직무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해 채용하고, 중증 장애인도 업무 능력에 맞춰 채용할 계획이다.

원서 접수는 17일부터 28일까지며, 한화그룹 채용 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응시원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선발하며 합격자는 각사별로 3월 말경 발표할 예정이다.

(주)한화·화약, (주)한화·무역, 한화L&C, 한화테크엠, 드림파마, 한화에너지, 한화갤러리아, 한화63시티, 한화S&C 등 9개 계열사에서 100여 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모집 직무는 IT서비스 회사인 한화S&C는 전산 시스템 개발 및 관리 운영 업무 등이며, 한화갤러리아에서는 총무·판매직·회원 관리 등 영업지원 분야 등이 있다. 다른 회사에서도 총무, 설계, 재무·회계, 생산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채용을 진행한다.

이번에 채용되는 직원들은 정규직으로, 급여나 복리후생 등 모든 면에서 일반 직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김태균기자

'발등의 불' 저출산 문제

청론탁설
유병철
<언론인>

그토록 우려했던 저출산 문제가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출산장려정책이 무색할 만큼 퇴보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출산율이 전년보다 오히려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까지 태어난 출생아를 토대로 12월치를 집계(추산)한 결과 2013년 출산율이 1.18명 안팎으로 전년의 1.3명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74명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다. 더욱이 지난해 출산율은 저출산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인 2003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출산율이 1.08명까지 떨어지자 2006년부터 1차(2006~2010년)와 2차(2011~2015년)에 걸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하면서 연평균 1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24조6000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뒷걸음질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속 가능한 인구를 맞추자면 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한다. 현재 추세대로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크게 줄어들어 경제 성장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된다. 이에 반해 노인 인구는 해마다 늘어 말 그대로 '초고령 사회'가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오는 2026년에는 전체의 20%가 넘을 전망이다. 다섯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노인이 되는 셈이다. 또한 노인 1명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생산가능인구는 2007년 7명에서 오는 2020년에는 4.6명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러한 예측은 조금도 벗나갈 가능성이 없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인구 통계가 미래에 관련된 것 가운데 가장 정확히 내다볼 수 있는 유용한 자료"라고 주장한 바 있다. 여기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20~30대 젊은이들의 결혼관이 아주 비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59.6%만이 결혼을 '필수'로, 40.4%가 '선택'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혼관으로 보아 저출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을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재정 투입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출산장려정책에 이상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프랑스 등 다른 나라의 성공 사례를 좀 더 연구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세워야 할 것이다.

포토프리즘 "기억하세요! 2월 14일은 안중근 의사 사형 선고일"

지난 14일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을 찾은 여고생들이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담은 영상을 보고 있다. 이 학생들은 "2월 14일이 안중근 의사의 사형 선고일이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밸런타인데이보다 뜻깊게 보내고 싶어 성남에서 버스를 타고 왔다"고 말했다.
/손진영기자 son@metroseoul.co.kr

수입차 살아나야 우리도 산다

뉴스룸에서
염의택
<경제산업부 차장>

"미국에 좋은 것은 GM에도 좋고,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한다."

1952년 대선에 승리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내각에 국방장관으로 발탁된 GM 사장 출신 찰스 윌슨은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말은 이 시대를 말해주는 명언으로 인구(人口)에 널리 회자됐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많은 이들이 현대차가 살아야 우리나라도 산다고 굳게 믿는 듯하다. 현대차가 국내 완성차 업계에서 자지하는 비중을 보면 그럴싸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시각이 현대차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 현대차는 여전히 국내 최고의 자동차 기업이고, 현대차와 기아차를 합친 실적은 세계 5위를 달리고 있으니 글로벌 톱 티어로 손색이 없다. 문제는 내수에서 점유율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를 해외에서 만회하고 있지만 위험성도 증가한다. 특히 러시아·브라질·중국 등 신흥국의 경기 부진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자동차 회사에는 내수시장에서 안정적인 점유율 확보가 꼭 필요하다. 현대차뿐 아니라 국내 완성차 업계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상황은 녹록지 않다. 급증하는 수입차 판매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근래 현대차의 행보를 보면 경쟁자는 오로지 수입차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 시승회에서 설명하는 내용도 그렇고, 보도자료 또한 온통 수입차와의 비교 일색이다. 제품 경쟁력이 좋아진 덕분이기는 하지만 소비자들이 국산차 전체를 외면하는 결과를 나을 수 있다.

국내에서 수입차 판매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 이런 과정이 국내 완성차 업체를 존폐의 위기에 몰아넣지는 않을 것이다. 현대차를 비롯해 국내 완성차 업계의 경쟁력이 허약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입차 판매가 늘수록 국내 업계는 더욱 긴장하고 좋은 차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기아차 K9의 품질이 더 좋아지면서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게 단적인 사례다.

2006년 5월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칼럼에서 "미국의 장래에 GM보다 더 위험한 기업이 있는가. 차라리 도요타가 이 회사를 하루빨리 인수할수록 미국은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독설을 내뱉었다. "미국에 좋은 것은 GM에도 좋다"는 말이 나온 지 불과 50여 년 지난 후에 상황이 180도 바뀐 것이다. 한국의 상황은 어떤지 진지하게 되돌아볼 때다.

책을 찾는 여행

인문학 산책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

실크로드를 공부하다 보면 스벤 헤딘과 아우렐 스타인이라는 이름을 만나게 된다. 19세기 말 20세기 초반 실크로드 탐험의 선두 주자들이다. 실크로드라는 명칭은 페르디난트 폰 리히트호펜이 처음 사용했지만, 동서 문명 교류의 길을 인류사에 새롭게 아로새긴 사람들은 이들과 같이 당시 오지(奧地)라 할 중앙아시아 변경에 들어선 탐험가들이다.

그들의 글을 읽어나가노라면 우리는 망각된 과거가 생생하게 복원되는 경이로움을 체험하게 된다. 물론 이들이 문화재 절취의 과오로 인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도 실크로드 역사의 지울 수 없는 대목이다.

이들이 밟아간 궤적을 따라가다 보면 또 다른 뛰어난 탐험가 오언 래티모어와 마주하게 된다. 오늘의 신장 지역과 중앙아시아, 만주와 몽골에 이르기까지 그의 견식은 전방위적으로 펼쳐졌다. 그렇게 펼쳐지는 그 역사의 흐름에 몸을 싣고 가다 보면 우리는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 종교가 합류하는 거대한 강을 건너게 된다.

그와 같은 지적 여행은 각 시기와 지역의 철학, 신학, 미술, 건축, 정치와 경제에 관계된 서적들의 탐색으로 이어진다. 무엇이 그토록 불가사의한 종교적 열정과 고독한 여정의 결단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해지기 때문이다. 어디 그뿐인가? 20세기에 이르면 피터 홉커크가 잘 묘사했던 바대로 바로 이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서구 제국주의가 서로 영토전쟁을 벌이는 역사를 목격하게 된다.

실로 인류가 그간 살아온 세계사는 그 어느 하나 서로 동떨어져 움직여온 것이 하나도 없다. 책을 찾는 여행도 마찬가지다. 하나의 길에서 계속 가지치기를 하고 새로운 길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습득하게 되는 지식의 계보는 확장되고 심화된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은 너무 빨리 하나의 전문 분야로 지적 영토를 협소하게 만들어버리고 만다. 시간이 지나면 금세 낡고 못 쓰게 될 정보 검색형 교육이다. 어떻게든 빨리 써먹겠다는 조급한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풍토에서 실크로드의 세계적 권위인 정수일 선생이 80대 노구에도 불구하고 '실크로드 사전'을 펴낸 것은 기적에 가깝다. 이미 숱한 저술의 길이를 확충한 그의 노고이기에 더욱 존경스럽다.

진정한 배움은 오랜 시간 익히고 다져나가는 과정을 기뻐하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책을 찾는 여행에 걸리는 긴 시간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사회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된다.

주택 매매시장만 보는 정부

기자수첩
박선옥
<경제산업부 기자>

최근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율이 2000년 이후 처음으로 60%를 돌파했다. 이쯤 되면 전셋값에 몇천만원만 더 보태 차라리 집을 살 만도 한 상황이다.

실제 전세를 구하러 왔다가 마땅한 물건을 찾지 못해 결국 매매로 돌아서는 사례도 최근 부쩍 늘었다는 게 일선 중개업자들의 증언이다. 하지만 전체 전세 수요자 중 매매로 전환하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이고 여전히 상당수가 전셋집을 찾아 헤맨다고 한다.

이처럼 몇천만원만 대출을 받으면 어엿한 집주인이 될 수 있음에도 세입자들이 전세 난민을 자처하는 이유는 빚에 대한 부담이 한계치에 다다랐기 때문일 터다. 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 4분기 전세자금대출 이용자의 1인당 평균 금액은 5700만원에 이른다.

상황이 이럴진대 국토교통부는 지난주 "세제·금융 공급 등이 총망라된 부동산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주택 시장 안정의 기틀을 닦았다"고 자평했다. 지난해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이 1.1% 하락해 전년보다 내림폭이 줄었고, 거래량은 15.8% 증가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10만 가구에 9조3000억원의 빚을 풀어 인위적으로 집값을 떠받들고 거래를 유도한 것을 정상화라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더군다나 자기 집도 아닌 전세에 살면서 빚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전세 안정 관련 성과는 사실상 전무하다.

우리나라의 자가 비율은 50%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국민의 절반은 자기 집은 없다는 말이다. 정부가 시장 안정화의 초점을 '매매'뿐 아니라 '전세'로도 돌려야 하는 이유다.

스위스 향해 '부릉~'

제네바 모터쇼 '주목할 차'

'제네바 모터쇼'(다음달 7~17일)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세계 4대 모터쇼 중 하나인 제네바 모터쇼는 자국 메이커가 없어 가장 중립적인 모터쇼로 평가 받고 있다. 매해 유럽에서 가장 먼저 열리는 국제 모터쇼에서 위상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번 모터쇼에는 르노의 주력 소형차인 **트윙고**가 풀 체인지 모델로 선보인다. 공식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3기통 엔진과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조합돼 경제성을 대폭 강화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3도어가 기본이며 5도어의 스포츠트림 모델도 나온다. 이 차는 신형 스마트 포포(ForFour)와 공동 개발돼 더욱 관심을 모은다.

폭스바겐은 신형 **시로코**를 선보인다. 최고 출력 276마력으로 업그레이드된 가솔린 터보 엔진을 얹은 시로코R을 비롯해 177마력, 217마력의 엔진이 함께 선보인다. 다른 모델은 148~181마력으로 성능을 강화했다. 외관은 신형 골프처럼 각을 살렸다.

시트로엥의 새 크로스오버차량(CUV)인 **C4 캑터스**(Cactus)도 등장한다. 2013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 나왔던 콘셉트카의 양산형 버전인 이 차는 도심형 소형 CUV다. 스타일에서는 차체 도어에 달린 '에어 범퍼'가 눈에 띈다. 이는 저속에서 옆 차와 접촉하거나 험로를 달릴 경우 차체를 보호하는 기능도 발휘한다.

람보르기니는 **우라칸**을 선보인다. 1879년 스페인 투우의 이

위부터 르노 트윙고, 폭스바겐 시로코, 시트로엥 C4 캑터스, 람보르기니 우라칸, 스마트 포포

름에서 자명을 따온 우라칸 LP 610-4는 독특한 디자인과 혁신적인 기술 패키지를 갖췄다. V10 5.2ℓ 엔진은 가이르도에 비해 50마력가량 향상된 610마력의 최고 출력을 내고, 57.1kg.m의 최대 토크를 발휘한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3.2초, 시속 2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9.9초에 불과하다.

스마트 포투(ForTwo)와 **스마트 포포**(ForFour)도 모습을 드러낸다. 3세대로 진화한 스마트 포투는 C453이라는 프로젝트로 개발됐다. LED 헤드램프와 테일램프로 분위기를 새롭게 단장했고 실내 공간을 구형 대비 크게 늘렸다. /서준희기자

< 중고차 시장에서 감가율이 가장 낮은 SUV 중고차 시세 > 단위:만원

제조사	차종	2009년식	2010년식	2011년식	2012년식	2013년식
현대	싼타페CM	1,640	1,630	1,970	2,220	
	투싼ix	1,690	1,710	1,790	2,010	2,270
기아	쏘렌토R	1,870	1,950	2,180	2,400	2,630
	스포티지R		1,810	1,890	2,060	2,180
삼성	뉴 QM5	-	-	2,230	2,080	2,460
쌍용	코란도C	-	-	1,930	1,900	1,930
폭스바겐	티구안	2,520	2,680	3,160	3,380	3,930
BMW	X1	-	3,120	3,390	3,940	4,340
	뉴X3	-	-	4,730	4,980	5,610
지프	랭글러	2,740	3,120	3,160	3,750	3,930
아우디	Q5	3,690	3,960	4,410	4,530	4,130

정보제공: 다나와 자동차(auto.danawa.com)

달릴수록 빠져들거야

엄의택의 차 차 차

■ 아우디 A3

운전자가 작은 차에서 느끼는 즐거움은 큰 차를 몰 때와는 차원이 다르다. 자동차 메이커 입장에서는 완성도를 높이기 어려운 게 바로 소형차다.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다양한 요소를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최근 아우디가 선보인 A3는 매우 돋보이는 모델이다. A4 아래에 자리하는 이 차는 폭스바겐 제타급으로, 국산차로 치면 아반떼 정도에 해당한다. 이전에 나왔던 구형 A3 해치백과 비교하면 디자인의 완성도가 한층 높아졌다. A4와 유사한 이미지로 다듬으면서도 A3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갖추는 데 성공했다. 작은 차지만 고급스러움을 잃지 않은 게 가장 돋보인다.

대시보드는 사진으로 볼 때 단순한 느낌이 들었으나 실제로 보니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필요한 기능들을 고루 갖추면서 심플하게 정리한 감각이 괜찮다. 센터페시아에는 공조장치만 있고 오디오와 그 외의 기능들은 MMI 컨트롤러로 통합했다. 모니터는 센터페시아 아래에 숨어 있다가 동작할 때만 나온다.

▲한 줄 평가: 작은 차지만 운전의 즐거움은 충만한 ▲점수: ★★★★(별 다섯 개 만점)

제타·아반떼급 소형세단 운전할 땐 큰 즐거움
인상적인 가속성능·핸들링 등 경쟁모델 추월

한 가지 흠을 잡자면 그래픽의 해상도가 아우디의 다른 모델들에 비해 많이 떨어져 보인다는 점이다.

휠베이스(앞뒤 바퀴 축간 거리)는 2637mm로, 아반떼보다 63mm가 짧다. 이 때문에 뒷좌석 공간의 여유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A3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가속 성능과 핸들링이다. 150마력의 최고 출력은 작은 차체를 이끌기에 충분하고, 6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는 엔진의 파워를 순발력 있게 받아준다. 특히 저속부터 폭넓은 구간에서 발휘되는 순간 가속력이 돋보인다.

효율성도 높다. 표시된 도심연비는 15.0km/ℓ, 복합연비는 16.7km/ℓ인데 이번 시승에서는 주로 하게 13~14km/ℓ를 기록했다. 시내 구간이 많았고 연비에 신경 쓰지 않고 달린 것을 감안하면 좋은 편이다.

작은 차체에 비하면 주행 안전성은 매우 뛰어나다. 핸들링은 안정감이 있고 민첩성도 우수하다. 승차감은 중형 세단에 미치지 못하지만 동급에서는 좋은 편이다. 타이어는 피렐리 또는 던롭의 225/45R17 사이즈(다이내믹 모델)가 장착되는데 차체와의 궁합이 괜찮다.

아우디 A3의 가격은 3750만~4090만원인데 차급이나 가격으로 볼 때 국내에서는 마땅한 경쟁 모델을 찾기 힘들다. 운전의 즐거움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A3가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것이다.

/엄의택기자 ferrari@metroseoul.co.kr

'전기차 카셰어링' 집 앞에서 타고 내려요

전기차 공동 이용(카셰어링) 서비스 사업체 씨티카는 서울 반포동 미도아파트 공영주차장에 씨티존을 개설하고 아파트 단지 공략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씨티존 개설은 LG CNS의 자회사로 서울시와 전기차 카셰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씨티카가 소비자 이용과 반납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송기호 씨티카 대표는 "궁극적인 목표는 소비자가 내 집 앞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함"이라며 "반포동 미도아파트 단지를 시작으로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에 씨티존을 개설하겠다"고 설명했다.

씨티카는 일반 카셰어링과 달리 유류비가 추가로 들지 않아 경제적이고 매연과 소음도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도시형 전기차 카셰어링 서비스이며 운전면허를 소지한 만 21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상암동 디엠씨, 여의도 IFC몰, 강남역 등 서울 시내 50여 개 씨티존에서 최소 1시간 이상 예약 시 시간당 6300원(베이직요금 기준)에 이용할 수 있고 운행 중에 30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김희준 기자

응답하라! 1990

새우버거

~~₩3,300~~

₩1,990

2월18일 ~ 2월20일 (3일간)

PM 2시 ~ PM 8시

※본 행사는 당점포에서만 시행됩니다 ※제휴카드 및 멤버스카드 할인혜택이 없습니다

타이완 관광절 경축대회 '꽃할배' 나영석 PD 수상

타이완관광청이 최근 타이베이 원산대반점에서 '2014 타이완 관광절 경축대회'를 개최했다.

경축대회는 매년 초 열리는 타이완 관광업계의 가장 큰 행사로 이 자리에서는 전년도 타이완 관광 발전에 이바지한 우수 단체나 기업, 인사가 선정된다.

올해 경축대회의 한국 수상 기업은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 ▲하나투어 ▲모두투어 ▲비넌티어스 ▲아영텍사 등이며 특히 지난해 하반기 방송 이후 젊은층은 물론 중장년층 및 노년층에게까지 타이완 배낭여행 붐을 일으킨 '꽃보다 할배'의 나영석(사진 오른쪽) PD도 수상자로 선정됐다.

타이완은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2014년 꼭 가봐야 할 52곳의 여행지 중 11위에 오르며 해외여행지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곳이다.

/유지훈기자

양서·파충류 최대 종 보유 페루 마누 국립공원 뜬다

페루관광청은 페루 남부 지역에 위치한 마누국립공원이 최근 양서류 및 파충류 부문 최대 생물 종을 보유한 국립공원으로 뽑혔다고 16일 밝혔다. 관광청은 마누국립공원은 양서류 155종·파충류 132종 등이 서식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에코 투어리즘의 필수 코스라고 설명했다.

뮤지엄 제공

주방놀이 "까르르" 가상현실 "와!"

알찬 봄방학 위한 체험학습 프로그램들 손짓

봄방학 시즌이다. 3월부터 시작될 새 학기를 앞두고 아이들에게 알찬 봄방학을 선사하고 싶다면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전시·공연 문화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체험학습 포털 키즈온의 장성수 대표는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는 체험학습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며 "아직 쌀쌀한 날씨에 야외 활동이 꺼려진다면 가까운 전시·공연 체험학습장을 찾아 나들이를 떠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애들아, 주방에서 놀자!

위브온에서 만나볼 수 있는 놀이체험 '주방놀이 대 탐험전'은 주방에서 만지고 두드리며 음악과 과학, 미술을 배울 수 있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이다.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친숙한 주방 도구들로 놀며 재미를 경험할 수 있으며 주방 속 숨겨진 생활 과학의 비밀도 실험을 통해 풀어볼 수 있다. 전시는 다음달 2일까지 서울 광진구 능동 어린이회관에서 진행된다.

자연에 있는 듯 실감 나는 사파리와 살아있는 파충류 동물을 직접 만지며 체험할 수 있는 '실감나는 사파리&살아있는 파충류 체험 테마파크'도 봄방학 가족 나들이 장소로 제격이다. 체험은 경기 파주시 헤이리디스멘등에서 3월 31일까지 이어지며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4D라이더, 신비의 매직 마술쇼도 함께 즐길 수 있다. 또 아프리카를 연상케 하는 테마카페도 운영돼 온 가족이 편안한 휴식과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다.

◆감성과 상상력이 쑥쑥! 영어와 놀이가 콩콩!

자녀와 함께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가족 뮤지컬 소식도 있다. 베스트셀러 동화를 뮤지컬로 만나볼 수 있는 영어 뮤지컬 '구름빵'은 영어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는 공연이다. 특히 영어 교육 전문가가 감수한 대본과 영어 동요로 아이들의 영어 감각을 깨워줄 수 있다. 서울 강남역 네오아트홀에서 열리는 공연은 3월 2일까지 이어진다.

일본에서 70만 명이 관람해 화제를 모은 '체험형 미디어아트전 빛의 정원'도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3월 2일까지 서울숲 갤러리아포레 특별 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전시는 일본 미디어아트 작가 12명이 빛과 그림자로 만들어낸 작품들을 통해 빛의 놀라운 세계를 감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이들은 빛으로 만든 유리구슬들을 만져보고 빛을 조절해보는 등 작품들을 직접 체험할 수도 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한국인 '워너비 여행지' 1위 유럽

인터파크투어 설문 눈길

지난 1월 한국인들의 마음이 유럽으로 가장 많이 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파크투어는 지난 1월 한 달간 '당신의 워너비 여행지'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럽 노선이 36%로 가장 인기를 얻었다고 최근 밝혔다. 또 같은 기간 유럽행 항공권 또한 전년 동기 대비 2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tvN '꽃보다 누나'에서 소개된 크로아티아가 34.7%로 2위에 올랐으며 코타키나발루(13.1%) 대만(12.4%) 인도(3.8%)가 그 뒤를 이었다.

여행 도시로는 런던이 가장 인기 있었으며 파리·로마·이스탄불·마드리드·프랑크푸르트도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행 항공권 또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저비용 항공사의 노선 확대와 특가 상품 증가, 엔저 현상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동행하는 여행자에 따라 선호하는 지역이 달라졌다. 먼저 가족 여행의 경우는 응답자의 30.5%가 제주도를 선택했으며 파리와 터키·그리스·보라카이·홍콩·마카오도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커플 여행지로 가고 싶은 곳에 대한 질문에는 파리가 44.0%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보라카이와 푸켓, 방콕이 그 뒤를 이었다. 또 홍콩·도쿄·유럽은 혼자 떠나기 좋은 여행지로 꼽혔다.

/백아란기자

공항에서 당한 민폐 '체크인 새치기' 최악

공항 내에서 불쾌감을 주는 가장 큰 행동으로 새치기가 꼽혔다.

여행 가격 비교 사이트 스카이스캐너는 최근 5년간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만 18세 이상 한국인 여행자 1000명을 대상으로 '공항 에티켓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8.9%의 응답자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여행자들로 불쾌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62.7%는 체크인 안내선을 무시하고 몰래 끼어드는 등 몰래 새치기를 하는 행위를 비매너로 꼽았다. 또 바닥에 짐을 펼쳐놓고 통행을 방해하거나(41.4%) 길을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는 경우(39%), 부딪친 뒤 사과를 하지 않는 경우(36.4%) 등이 뒤를 이었다.

술 취한 여행자들에 대해서는 남녀의 의견이 엇갈렸다. 여성 여행자의 32.67%가 술에 취한 여행자들을 기피 대상으로 꼽은 반면 남성 여행자들은 14.43%만 이를 불편하게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해외여행을 떠나는 우리나라 여행자 10명 중 4명은 중국 시 다른 여행자들의 매너 없는 행동으로 불쾌감을 느낀 적이 있지만 직접 항의하는 경우는 10명 중 1명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항에서의 비매너 행위에 대한 대응법에 대해서는 항공사 직원이나 안내데스크에 알리거나(59.3%) 직접 항의한다(11.5%)고 응답한 여행자가 대다수였지만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여행자도 무려 26.9%나 됐다.

/백아란기자

'버거쿡'으로 소자본 창업 도전을!

밥버거전문점 '버거쿡코리아'가 서울역 1호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가맹점 모집에 들어갔다.

1호점 가설 한 달 만에 현재 전국적으로 5개 매장이 오픈됐고 3개 매장은 준비 상태다. 버거쿡은 테이크아웃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소형 평수의 매장을 가지고 창업이 가능하며 소자본으로 지속적으로 안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유망 소자본 창업 정보를 찾는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차별화된 원두 로스팅으로 커피전문점의 부가수익 창출이 가능하며 김밥 메뉴·덮밥 메뉴·밥샌드위치 메뉴를 다양화했다"며 "셀프 DIY 시스템을 도입해 매장 운영비를 줄이고, 간편한 조리가 가능해 초보창업자도 쉽게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버거쿡 밥버거(www.burgercook.com)는 4무(無) 성공 창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가맹비·물류보증금·교육비 없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며 무이자 창업 대출도 알선한다. 문의 1544-9271

/김민준기자

2014학년도 1학기 **대학등록금 납부 이벤트**

Event 1 Recover 착한 등록금

부산은행에 등록금을 납부한 고객님 중 추첨을 통해 등록금을 캐쉬백합니다!

1등	2등	3등	4등	5등
전액 장학금 (1명)	등록금 캐쉬백70% (2명)	등록금 캐쉬백50% (5명)	등록금 캐쉬백30% (10명)	토익 응시료 (100명)

Event 2 Refresh BS청춘불패 콘서트 2014!

대상 : 등록금 납부 고객 중 추첨 공지
인원 : 500명 (250명 추첨, 친구 1인 동반)
일자 : 2014년 3월 11일(화)
장소 :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내용 : 개그공연, 가수공연, 유명강사 특강

Event 3 Relax 요트아카데미

대상 : 부산지역 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
일정 : 2014년 4월중
코스 : 해운대 ~ 오륙도 ~ 이기대 ~ 광안리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부산은행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및 콜센터 1544-6200/1588-620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상화 패션'도 인기 질주

2연패때 착용한 오클리 선글라스·휠라 점퍼 '특수'

스피드스케이팅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2연패를 달성한 빙속 여제 이상화가 착용했던 운동복과 선글라스 등이 특수를 누리고 있다.

온라인몰 옥션은 올림픽 개막 후인 7일부터 13일까지 이상화가 경기 중 썼던 오클리의 레이다 선글라스(위 사진)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0% 늘었다고 16일 밝혔다.

이 선글라스는 이상화가 경기를 마치고 비브지에 끼운 채 트랙을 도는 모습이 화면에 비치면서 화제가 된 제품이다.

이상화가 경기 전 입고 나온 야광으로 소매 처리가 된 휠라 트레이닝복 상의(아래)는 지난해 가을에 출시됐던 제품이지만 최근 구입 문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상화의 의상뿐만 아니라 국가대표 트레이닝복에 로고가 박혀있는 휠라 브랜드 의류의 판매율은 작년 같은기간보다 7배나 늘었다.

올림픽 2연패에 도전하는 '피겨 여왕' 김연아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스피드·피겨스케이트 용품도 인기다. 이 기간 피겨·스피드 전용 스케이트의 판매는 10% 늘었다.

◆그녀의 취미 빨도 열풍

이상화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블록완구 레고와 네일아트를 애용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레고와 네일아트 제품 매출도 각각 35%, 40% 신장했다.

옥션 관계자는 "소치 동계올림픽이 개막한 후 국가대표 선수가 착용한 의상, 모자, 선글라스 등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며 "특히 이상화의 올림픽 2연패로 이상화 수혜 상품들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원기자

피부에 뒤끝 남기면 미워

파라벤 뺀 보습제·실리콘 뺀 샴푸… '유해물질 무첨가' 뷰티제품 대세로

직장인 김선영(27)씨는 화장품을 살 때 라벨부터 확인한다. 파라벤이나 페녹시에탄올 등 유해 물질이 들어있는지 성분 표시부터 체크하는 것. 김씨는 "화장품의 주요 성분인 파라벤이 내분비계 교란 장애를 일으킨다는 뉴스를 접한 뒤로는 제품을 구입할 때마다 성분을 꼼꼼히 살펴본다"고 말했다.

최근 김씨같이 화장품 성분을 중요시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뷰티 업계에 '무첨가' 바람이 불고 있다. 주요 브랜드들은 각종 피부염을 유발하는 유해 성분을 쏙 빼고 안전성을 어필하고 있다.

얼굴 보습제는 자주 사용하는 만큼 화장품 성분이 피부에 축적되기 쉽다. 특히 민감한 피부일수록 미세한 성분에도 피부 트러블이 일어나므로 피부에 자극을 주는 파라벤, 에탄올 등의 성분은 피해야 한다. 마토름 인텐시브 케어 판테놀 로션과 크림은 파라벤은 물론 색소, 에탄올, 미네랄 오일 등 피부에 유해한 10가지 성분을 배제한 고보습 제품이다. 독신 글로벌 특허 MLE 기술이 보습막을 형성,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얼굴만큼 두피 건강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요즘 샴푸 업계에서는 무실리콘 샴푸가 대세다. 기존 샴푸에 포함된 실리콘은 머리카락을 코팅해 부드러운 머릿결을 만들어 주지만, 두피와 모발에 남은 실리콘 찌꺼기들은 오염과 모발의 큐티클을 막아 뾰루지와 탈모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허벌 에센스 클래식 릴렉싱 카모마일 샴푸'는 실리콘을 넣지 않아 두피와 모발 속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식물 유래 성분인 코코넛 오일, 카모마일 등이 배합돼 있어 모발을 윤기 있게 가꿔준다.

대용량으로 구입하게 되는 보디워시의 경우 방부제 역할을 하는 파라벤과 세정에 도움을 주는 설페이트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 이 성분들은 물로 씻어내도 피부에 남아 있어 장기간 사용 시 피부 트러블은 물론 피부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더마비 데일리 모이스처 보디워시는 파라벤, 페녹시에탄올, 미네랄 오일 등 5가지 유해 성분은 물론 설페이트 성분을 무첨가한 저자극 제품이다. MLE 보습 과학 포뮬러가 샤워 단계에서부터 탄탄한 피부 보습을 완성시켜준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새학기 쇼핑' 엄마가 호호호

신발·가방·의자 등 할인

유통업계가 새 학기 새 출발을 응원한다. 입학 시즌을 앞두고 신학기 용품 할인 행사를 잇따라 펼치고 있다.

슈즈 멀티숍 슈마커는 다음달 2일까지 전국 슈마커 매장에서 학생증이나 신분증, 교복 영수증을 제시하면 10% 할인 혜택을 준다. 신발과 함께 신학기 가방을 사면 20% 할인해준다.

듀오백코리아는 다음달 30일까지 공식 쇼핑몰과 전국 매장에서 듀오백 의자 8종을 30% 할인 판매한다. 듀오백 일회, 듀오백 2.0, 듀오백 2.0 키즈, 듀오텍스, 듀오텍스 키즈를 사는 고객에게는 한면 라텍스 백가와 배기 커버를 증정한다.

위니아만도는 다음달 10일까지 위니아 에어워셔 캐니멀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가격 할인 혜택과 함께 3만원어치의 오바일 문화상품권을 제공한다.

락앤락은 28일까지 락앤락몰과 전국 매장에서 '2014 신학기 대전'을 실시한다.

유아용품 등 학교와 볼 소풍 필수품인 도시락과 텀블러, 방 정리에 필요한 플라스틱·패브릭 수납함 등 1000여 품목을 최대 40% 할인한다. /박지원기자

아디다스 러닝화 신제품 '이름처럼 스프링 블레이드'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가 16일 명동 블레이드 스토어 이노베이션 센터에서 '스프링 블레이드' 러닝화를 선보이고 있다. 스프링 블레이드는 방향이 경사진 뒤꿈치 하이테크 폴리머로 만든 16개의 고탄력 블레이드를 적용해 발 밑에 스프링이 있는 것과 같은 추진력을 느낄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아디다스 제공

이대목동병원 임상시험 수행평가 'A' 획득

식약처, 43곳 평가 결과

이대목동병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 실시기관 수행능력 평가에서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A 등급을 획득했다.

이대목동병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도입한 임상시험 기관 차등 관리제에 따라 임상시험 수행 건수가 많은 병원 43곳을 평가한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수행능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총 28개 기관이 우수 등급인 A등급을, 15개 기관이 보통인 B등급을 받았다.

이대목동병원은 이화임상시험센터와 임상시험과 관련된 여러 워원회를 통해 매년 심포지엄, 워크숍,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임상연구 수행의 질, 임상연구 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임상시험 기관 차등 관리제란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수행능력을 평가해 3등급으로 분류하고 점검 항목·주기를 차별화하는 사후 관리제도로 A등급을 받은 기관은 5년마다 1회 수행능력을 점검받게 되며 B등급은 3년에 1회, C등급은 연 2회에 걸쳐 수행능력을 점검받는다. /황재용기자

소치 2라운드 예능 '3색 장외전쟁'

반환점 돈 동계올림픽 방송 3사 중계 삼국지

소치 동계올림픽이 개막 열흘째에 접어들면서 전체 일정 중 절반 이상 마무리됐다.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선수들의 메달 경쟁만큼 치상파 방송 3사의 중계 시청률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각 방송사들은 저마다 전문성과 개성 있는 진한 진행자들을 내세우는 한편 예능적인 요소도 접목해 시청자들의 눈길 잡기에 나서고 있다. 마치 예능 프로그램 장외 싸움을 보는 듯하다.

◆KBS 강호동+ 우리동네 예체능

KBS는 지난 10일 모태범 선수의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m 경기에 방송인 강호동을 특별해설위원으로 투입해 가장 먼저 시청률 정점에서 우위를 점했다.

천하장사 씨름선수 출신 강호동은 선수의 입장에서 상황을 설명하며 시청자의 공감대를 이끌었다. 또 강호동은 이상화의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 경기 해설 도중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KBS 관계자는 "강호동은 정식 해설위원이 아닌 보조 해설위원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코멘트가 앞서가면 안 된다는 것을 정말 잘 알고 있었다"면서 "소치로 출국하기 한

KBS

강호동 선수 입장 해설 '호평' '예체능' 출연진 현장 명활약

달 전부터 공부하고 스포츠국과 회의를 하며 준비했다"고 말했다.

맏형 강호동이 선수들의 마음을 대변했다면 '우리동네 예체능' 출연진은 현장 곳곳에서 활약했다. '우리동네 예체능' 관계자는 "출연진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활약했다"며 "강호동뿐 아니라 다른 멤버들도 한 달 전부터 소치올림픽을 준비해왔던 만큼 볼거리가 다양하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동네 예체능' 소치올림픽 특집은 오는 18일과 25일 2회에 걸쳐 방송된다.

◆SBS 예능 스포츠 강자 이경규 투입

SBS는 축구 중계로 많은 스포츠 팬을 거느린 배성재 아나운서를 대

SBS

배성재 아나·방상아 내세워 '힐링캠프' 감성코드 부각

표 주자로 내세웠다. 또 1994년부터 SBS에서 피겨스케이팅 해설을 맡으며 대중과 친숙한 방상아 해설위원을 내세웠다. MBC와 KBS가 김성주와 강호동을 투입해 주목받은 것과 다른 모습이다.

여기에 지난 2012 런던올림픽에 이어 두 번째로 이경규·성유리의 '힐링캠프'를 현지에 출격시켰다. 예능과 스포츠 선두 주자 이경규 사단을 투입해 또다시 감성 예능을 예고하고 있다. 이들은 5일간 소치에 머물며 대한민국 선수단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특히 이경규는 2002년 MBC '이경규가 간다'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2년간 스포츠와 예능을 결합시켜 전 국민이 공감하는 예능을 보여줬다.

SBS 관계자는 "소치 경기의 선수

MBC

김성주 캐스터 전문성 강조 '진짜사나이' 팀 생생 인터뷰

들의 뒷 이야기를 생생히 듣고 왔다"며 "두 사람의 소치 촬영분은 '힐링캠프' 소치 특집으로 방송된다"고 말했다.

◆MBC 특별팀 차별화

MBC는 김성주를 앞세워 전문성을 강조했다. 김성주 이외에도 피겨스케이팅 국제심판 출신의 중재은 해설위원 등을 포함해 8명의 캐스터와 9명의 전문 해설진을 배치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성주를 비롯해 전문 해설진으로 분위기를 띄웠다면 기존 예능 프로그램이 아닌 특별팀을 투입해 차별화를 뒀다.

'일밤-진짜사나이'에 출연 중인 서경석과 박형식을 메인 MC로 내세워 '진짜사나이- 소치에 가다'를 특별 편성했다. 다만 두 사람이 막강한 팀워크로 똘똘 뭉친 경쟁사 프로그램의 MC들을 이겨낼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이들은 인터뷰를 중심으로 경기를 앞둔 대한민국 선수들의 통분되고 떨리는 심경을 그대로 전달할 계획이다.

MBC 관계자는 "현지 상황이 유동적이라 경기 결과에 따라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인터뷰 중심으로 경기를 앞둔 선수들의 심경을 전달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의 생생한 느낌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덧붙였다.

/장병호기자 yoo@metroseoul.co.kr

/디자인 박은지

中 영화 '백일염화' 베를린 황금곰상

배우 리아오판 이 작품으로 남우주연상… 한국은 단편부문 수상

디아오이난 감독의 중국 영화 '백일염화'가 제64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작품상인 황금곰상을 받았다.

폐막식 날인 15일(현지시간) 영화제 측은 '백일염화'를 경쟁 부문 황금곰상 수상작으로 발표했다. 이 영화는 남우주연상(리아오판)까지 수상해 2관왕에 올랐다. 특히 중국 작품이 이 영화제에서 황금곰상을 받은 것은 2007년 '투야의 결혼' 이후 7년 만이다.

'백일염화'는 구이룬메이·리아오판·왕쉐빙 주연의 정통 필름 누아르식 범죄 스릴러 영화다. 1999년 중국 북부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시체가 발견된 것을 추적하다가 가까스로 살아남은 전직 경찰관이 5년 후 또 다른 살인사건들을 조사하는 과정을 그렸다.

디아오이난 감독은 "오랫동안 이뤄지지 않았던 꿈이 실현됐다는 것을 도무지 믿을 수 없다"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영화 '백일염화'의 리아오판(왼쪽)과 디아오이난 감독이 15일(현지시간) 열린 제64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수상 후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백일염화' 포스터. /AP 연합뉴스

심사위원대상(은곰상)은 미국 웨스 앤더슨 감독의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이 차지했으며 최우수 감독상(은곰상)은 이혼 가정의 부모와 자녀 관계를 12년에 걸쳐 조명한 '보이후드'의 미국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이 받았다.

여우주연상(은곰상)은 일본 야마다 요지 감독의 '작은 집'의 구로키 하루에게 돌아갔다.

한국 영화는 20개 작품이 경합한 경쟁 부문에 한 편도 들지 못했지만 제너레이션과 포럼 부문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윤가은 감독의 단편영화 '콩나물'이 제너레이션 부문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이야기를 다룬 영화를 대상으로 하는 K플러스 단편영화상에 선정됐다. 할아버지의 기일을 맞아 제사 음식을 준비하던 중 콩나물을 사러 시장에 간 한 아이의 이야기를 담았다.

정윤석 감독의 '논픽션 다이어리'와 박경근 감독의 '철의 꿈'은 포럼 부문에서 아시아 상영작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작품에 주는 넷팩상을 수상했다. '논픽션 다이어리'는 지존파 사건부터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등 과거 사회적인 이슈들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며, '철의 꿈'은 한국 산업화 과정을 제철 산업 관점에서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다.

/박선영기자 psy0427@metroseoul.co.kr

이상민 vs 임요환… 심리대결 승자 누구?

'더 지니어스 시즌2' 결승전 22일 열려

화제 속에 방영 중인 tvN '더 지니어스 시즌2: 룰 브레이커' 결승전이 이상민(사진 오른쪽)과 임요환(왼쪽)의 대결로 압축됐다.

15일 방송에서 유정현이 탈락해 이상민과 임요환이 최종 우승의 영예와 상금 6200만원을 걸고 22일 결승에서 대결을 펼친다.

이날 방송에서는 탈락자 홍진호·이두희·이다혜가 복수를 위해 리벤저팀으로 돌아와 톱 3 이상민·유정현·임요환을 상대로 심리 게임을 펼쳤다.

메인매치 '엘리베이터 게임'에서는 리벤저팀과의 은밀한 전략으로 가장 많은 승점을 획득한 이상민이 생명의 징표를 얻어 생존하고 데스매치 '흑과 백'에서는 임요환과 대결을 펼친 유정현이 최종 탈락됐다.

리벤저팀은 이상민의 도움으로 메인매치 우승을 차지해 탈락자 10명에게 각 200만원의 상금을 나눠줄 수 있게 됐다.

유정현은 "'더 지니어스2'를 통해 나를 즐겨 봐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우리 사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40대 중후반 분들이 내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던 모습을 보고 작은 희망이라도 갖는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소감을 전했다. /박선영기자

할리우드 스타 페이지 "난 동성애자"

영화 '인셉션'에 출연한 할리우드 스타 엘렌 페이지가 커밍아웃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페이지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에서 열린 인권 캠페인에 참석해 동성애자임을 밝혔다.

그는 "내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이곳에 왔다"며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변화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더 쉽게 도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더는 숨어서 거짓말하고 싶지 않다. 지난 몇 년간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고통을 겪었는데 이제 고통받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엘렌 페이지가 영화 '위프 잇'에서 호흡을 맞춘 드류 배리모어와 촬영한 2009년 다큐멘터리 화보.

커밍아웃 선언이 화제를 모으자 페이지는 이후 사진과 트위터를 통해 "사랑과 응원을 보내준 모든 이들에게 고맙다"고 감사를 전했다.

1987년생인 엘렌 페이지는 1997년 영화 '핏 포니'로 데뷔했으며 2010년 '인셉션'의 애리어든 역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로마 위드 러브'에도 출연했다. /박선영기자

김수현·전지현 '케미' 1회 더… '별그대' 연장 방송

시청률 30% 돌파를 목전에 둔 SBS 수목극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사진)의 1회 연장이 확정됐다.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는 15일 "'별그대'의 1회 연장이 어제 결정됐다"며 "총 21부로 27일 종영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수현이 다음달 아시아투어를 펼치는 데다 박해진도 SBS 새 월화극 '닥터 이방인' 촬영에 들어갈 예정인 등 종영 직후 주연배우들의 일정이 워낙 빠듯해 연장이 쉽지 않았으나 최근 일정 조정에 합의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작사는 드라마의 인기가 높아지자 방송 중반부터 작가 및 배우들과 계속 연장을 논의해왔다.

한편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13일 방송된 17회는 전국 기준 27%를 기록하며 높은 인기를 입증했다. /박선영기자

'용사' 콘서트 7000명 열광

15일 '응답하라 1994' 드라마 콘서트에서 포옹을 하고 있는 고아라와 정우. /CJ E&M 제공

신드롬을 일으킨 tvN '응답하라 1994'의 드라마 콘서트가 '용사'와 팬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열렸다.

'응답하라 1994' 드라마 콘서트가 15일 서울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정우·고아라·김성균·도희 등 출연진과 1990년대 가수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총 7000명(2회 공연)의 관객들을 동원했다.

고아라가 드라마 OST로 삽입된 박기영의 '시작'을 부르며 막을 열었다. 도희는 소속 그룹 타이니지 멤버들과 함께 R.ef의 '이별공식'·서태지의 '하여가'를 열창하며 완벽한 댄스 실력을 선보여 남자 관객들의 환호를 받았다.

또 015B의 객원 보컬이었던 윤종신과 장호일, 솔리드 출신 김조한, 더 블루의 손지창과 김민종이 등장해 1990년대 추억의 명곡을 선사했다. 마지막은 정우와 고아라가 엔딩곡 '사랑보다 깊은 상처'를 부르며 장식했다. /박선영기자

관절질환 및 인대질환 5분이면 치료 끝!

진화하는 신개념 인대 및 관절 DNA 주사 '주목'

유명 남자 영화배우 C씨는 왼쪽 팔꿈치 및 무릎 인대 질환으로 여러 병원에서 인대 증식 주사, 체외충격파 치료, 줄기세포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 등을 맞았으나 효과가 오래가지 않고 자꾸 재발해 수술을 권유받았다. 하지만 수술이 두렵고 주변 사람들의 반대로 비수술적인 치료를 받고자 지인의 소개로 강남초이스병원 여의도점을 내원했다.

담당 주치의인 이승주 원장은 우측 주관절 내측 건초염 및 척골 신경염, 우측 발목 외측 인대 만성 손상 및 인대 염좌로 C씨를 진단했으며 강남초이스병원 여의도점에서만 시행하는 유전자 줄기세포 주사로 치료했다. 또 부종 감소와 염증 치료를 위해 특수 인대 치료 주사를 병행했으며 치료 후 C씨의 상태는 호전됐다.

강남초이스병원 여의도점에서 시행됐던 인대 및 신경 치료는 기존의 인대 증식 및 스테로이드 주사와는 다른 방법으로 일반적인 인대질환뿐만 아니라 재발되거나 오래된 인대질환, 신경 및 관절염까지 치료가 가능한 비수술적인 치료법이다. 또 인대 주사 치료는 스테로이드에 의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고 가격이 비싸고 치료 결과가 불확실한 줄기세포 주사의 단점을 극복한 시술이다.

이후 C씨는 완벽한 재활을 위해 강남초이스병원 여의도점의 척심 치료인 도수운동재활치료센터에서 체계적인 3차원 생역학적 도수치료, 근육 강화 운동치료를 주 2회씩 1개월 받았으며 지금은 일상생활에 불편함 없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유명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이 주로 찾는 강남초이스병원 여의도점은 이처럼 내원 환자의 질환에 따라 인대 증식 또는 유전자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선행한 후 질환의 재발을 방지하고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환자의 질환·나이·증상에 따라 맞춤형으로 치료를 실시한다. 또 전문의 도수치료사, 운동치료사 및 물리치료사 4명이 환자 1명을 전담하는 통합 진단 치료 시스템을 구축해 치료를 선진·체계화시켰으며 이를 통해 환자의 빠른 회복에 중점을 둔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배우 이중수(오른쪽)씨가 이승주 여의도 강남초이스병원 원장과 함께 웃고 있다. /강남초이스병원 제공

현재 강남초이스병원은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본원 외에 여의도 및 홍대입구역 입구에 목, 허리 및 어깨 통증 치료, 체형 교정(일자목, 골반 불균형, 휜다리, 측만증 등) 전문치료 클리닉 및 척추관절 비수술치료센터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문의: 서울대 본원 02)875-2200, 홍대점 02)336-2200, 여의도점 02)786-2200 /황재용 기자

metro sochi

소치 이모저모

피겨의상 최고 530만원

소치 동계올림픽에 참여한 피겨스케이팅 여자 선수들의 의상이 5000달러(약 530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야후스포츠는 16일 "어느 종목에든 최고가 되려면 들어야 하는 돈이 있다. 피겨스케이팅 의상의 경우 종종 터무니없이 많은 돈이 들어가기도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남자 선수들의 의상 가격도 적지 않다. 야후스포츠는 "피겨 선수들에게 의상은 경쟁의 일부"라며 "남자 선수들의 일부 의상은 최고 3000달러(약 320만원)에 이르기도 한다"고 전했다.

스키선수들 '부상 도미노'

소치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스키 선수들이 예기지 못한 부상과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6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러시아 여자 프리스타일 스키 선수 마리아 코미사로바가 로사 쿠토르 익스트림 파크에서 훈련 중 넘어져 척추를 다치는 중상을 입었다.

코미사로바는 현재 월드컵 랭킹에서 33위에 올라있는 선수로 강력한 메달 후보는 아니었다.

그런가 하면 알파인 스키에서 메달 후보로 거론되는 독일 펠릭스 노이로이터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소치 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독일 뮌헨 공항으로 차를 직접 몰고 가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며 분리대를 들이받았다.

목과 늑골 부위를 다쳤지만 다행히 검진 결과 뼈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예정보다 하루 늦은 15일 밤 소치에 도착했다. 약물치료를 하며 휴식을 취한 후 19일 대회전, 22일 회전 경기에 출전할 예정이다.

/박진환기자 jwk@(?)

국가별 메달 순위 <16일 오후 10시>

순위	국가	금	은	동
1	독일	7	3	2
2	노르웨이	5	3	6
3	스위스	5	1	1
4	러시아	4	7	6
5	캐나다	4	5	4
6	미국	4	4	8
7	네덜란드	4	4	6
17	대한민국	1	1	1

피겨 국가대표 김연아가 16일 오후(현지시각) 러시아 소치 해안클러스터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팰리스에서 ㅡ 훈련을 하고 있다. /뉴시스

쿨한 연아 "빙질 괜찮은데요"

sochi.ru 2014

메인링크 첫 리허설… 가벼운 몸놀림 보여주며 트리플 러츠 두번째 완벽 소화

'피겨 여왕' 김연아(24)가 두 번째 대관식이 열릴 메인링크에서 첫 리허설을 끝냈다.

김연아는 16일 김해진(17·과천고), 박소연(17·신목고), 아델리나 소트니코바(러시아), 나탈리아 포포바(우크라이나)와 함께 경기가 열릴 러시아 소치의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팰리스에 처음 섰다.

김연아의 라이벌로 급부상한 러시아의 율리아 리프니츠카야(16)가 같은 훈련조에 속해 이날 두 사람이 처음 만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리프니츠카야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김연아는 이날 훈련에서 빙질을 점검하고, 경기장 크기를 몸에 익히는가 하면 기본 점프를 체크하는데 몰입했다. 전날 휴식을 취한 김연아는 한층 가벼운 몸놀림으로 자신의 필살기인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를 여러 차례 점검했다.

프리스케이팅을 점검하기 위해 이날 훈련을 치른 김연아는 '아디오스 노니노'가 흘러나오자 실전을 소화하는 듯한 진지한 자세로 연기를 펼쳤다.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와 트리플 플립, 트리플 살코-더블 토루프 점프를 깔끔하게 성공시켰다. 스텝 시퀀스 부분에서 잠시 숨을 돌리던 김연아는 이어진 트리플 러츠 점프를 시도하다가 한 바퀴가량만 돌고 착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더블 악셀-더블 토루프-더블 루프 콤비네이션 점프, 트리플 살코와 더블 악셀 점프, 체인지풋 콤비네이션 스핀을 부드럽게 연결시키며 '피겨 여왕'의 압도적인 기량을 뽐냈다. 이어 트리플 러츠도 다시 완벽하게 해냈다.

훈련을 마친 김연아는 우려를 샀던 빙질의 상태에 대해 "생각보다 좋다. 남자 싱글 경기를 보니 실수가 많이 나오던데 빙질에 대한 문제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경기장에서 했던 것에 비춰볼 때 이 경기장만의 독이한 점이 보이지는 않는다"며 빙질이나 경기장 환경이 기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올림픽 챔피언'다운 자신감을 보였다.

40분가량 첫 메인링크 연습을 마친 김연아는 쇼트프로그램 전날인 18일 한 번 더 메인링크에서 연습할 예정이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한국 3회 연속 톱10 멀어지나

반환점까지 금 1개… 3개 추가해도 장담못해

동계올림픽 3회 연속 톱 10을 향한 한국 선수단의 목표에 적신호가 켜졌다.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의 전반을 지난 15일까지 한국이 거둔 메달 수는 금·은·동 각각 하나씩에 불과하다. 한국은 2006년 토리노올림픽에서 금 6·은 3·동 2개로 7위를 했고, 2010년 밴쿠버에서는 금 6·은 6·동 2개로 5위를 차지했다.

이번 올림픽 목표는 금메달 4개 이상으로 10위 안에 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금메달 추가를 기대해볼 종목은 심석희를 앞세운 쇼트트랙 여자 1000m와 3000m 계주, 김연아가 출전하는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이다.

이 종목에서 모두 금메달을 따더라도 톱 10을 장담할 수는 없다. 폴란드가 금 넷으로 8위에 올라있고, 9위 중국(금 3·은 2)과 10위 벨라루스(금 3·동 1) 등 10위권 내 경쟁국들의 전력이 만만치 않다.

자칫 노메달에 수모를 안고 귀국길에 오를 수 있는 남자 선수들의 선전이 더해지지 않으면 목표 달성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승훈이 밴쿠버 대회에서 은메달을 딴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만m를 비롯해 팀추월, 쇼트트랙 남자 500m 등에서 메달을 보태주지 못한다면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대회(금 2·은 2·14위) 이후 12년 만에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게 된다.

/유순호기자

16일 러시아 소치 올림픽 파크 컬링센터에서 열린 여자 컬링 한국과 덴마크 전에서 한국 이슬비가 신중하게 스톤을 던지고 있다. /연합뉴스

여자 컬링 준결승 진출 '사실상 무산'

덴마크에 4-7 역전패

벼랑 끝에 몰렸던 한국 여자 컬링 대표팀이 덴마크와의 이번 7차전 경기에서 선취점을 올렸지만 중반 대량 실점하며 세계의 높은 벽을 실감해야 했다. 이로써 우리 여자 컬링 대표팀은 2승5패를 기록, 사실상 준결승 진출이 좌절되고 말았다.

주장 김지선(27)을 비롯한 신미성(36), 이슬비(26), 김은지(25), 엄민지(23) 등 경기도청 소속 선수들로 구성된 한국 대표팀(세계랭킹 10위)은 16일 오후 7시 러시아 소치 아이스큐브 컬링 센터에서 세계랭킹 6위 덴마크와 경기에서 4-7로 역전패했다.

/장윤희기자 ynyoung@

"빅토르 안 한국에 금빛 복수"

러 귀화 안현수 금 후폭풍

빙상연맹 파벌싸움 재조명
성난 네티즌 홈피 마비시키
안현수 부친 "모두 용서했다"

안현수(29·러시아명 빅토르 안)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안현수가 15일 2014 소치 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10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자 러시아 귀화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반면 안현수의 성공 스토리는 한국과 러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한국 국적으로 2006 토리노올림픽에서 3관왕을 거둔 스타 플레이어가 러시아 유니폼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빙상연맹의 파벌 싸움이 재조명됐고, 성난 네티즌들은 빙상연맹 홈페이지를 마비시켰다.

'빅토르 안'과 '빙상연맹' 등 안현수의 갈등과 관련한 키워드는 15일 밤새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도배했다. 네티즌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댓글로 빙상연맹에 대한 격한 분노를 드러냈다.

러시아 쇼트트랙의 안현수(러시아명 빅토르 안)가 15일 (현지시간) 소치 해안 클러스터의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팰리스에서 열린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결승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뒤 러시아 국기를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안현수의 아버지 안기원(57)씨는 그동안의 섭섭함을 애써 감추면서도 빙상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였다.

안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운동밖에 모르는 현수가 운동하지 못하게 한 상황이 이 속였고 지켜줘야 할 선수를 지켜주지 못하는 연맹 고위 임원을 원망했다"며 "현수를 버린 시련 덕분에 현수가 잘됐으니 이제 오히려 감사하다. 이제는 원망이 사라지고 다 용서했다"고 그간의 마음을 털어놨다.

그러면서도 "연맹에서 한 사람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는 것이 문제"라고 그동안의 주장을 강조하며 "대통령께서도 나서서 부조리에 대해 이야기한 만큼 민주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연맹 회장님께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고쳐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러시아는 자국 쇼트트랙 역사상 최초의 금메달을 안긴 안현수에게 열광하고 있다. 현지 통신·방송은 안현수의 소식을 속보로 앞다퉈 보도했고, 그의 이력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직접 축전을 보냈고 자신의 페이스북 커버사진도 안현수로 교체했다. 이외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알렉세이 크라프초프 러시아 빙상연맹 회장 등도 안현수에게 축하를 보냈다.

야후스포츠는 '빅토르 안이 헌국을 향해 복수하는 데에 성공하고 러시아를 위해 금메달을 따냈다'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했다. 미국 샌디에이고 유니언트리뷴은 "안현수는 쇼트트랙에서 농구의 마이클 조던만큼 존경받는 선수"라며 "그가 러시아로 귀화한 것은 조던이 미국 대표팀과 불화를 겪은 끝에 쿠바 대표로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한순훈기자 sun@metroseoul.co.kr

미국 아이스하키 대표팀의 T.J. 오시가 승부치기에서 러시아를 꺾는 결승골을 터트리고 환호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푸틴도 보러왔는데…
러 아이스하키 美에 역전패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최고의 빅이벤트 중 하나인 아이스하키 라이벌전에서 미국이 러시아를 원정에서 꺾었다.

미국은 15일 러시아 소치의 볼쇼이 아이스돔에서 열린 2014 소치 동계올림픽 남자 아이스하키 A조 조별리그 러시아와의 경기에서 승부치기 끝에 3-2(0-0 1-1 1-0-0 승부치기 1-0)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전통의 라이벌이 벌이는 경기답게 1만1678명의 관중이 들어찼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 등 러시아 고위 인사와 아이스하키 영웅 바체슬라프 페티소프 등도 경기장을 찾아 응원을 열렬히 응원했다.

러시아는 주장 파벨 다츠유크가 무릎 부상에도 2골을 모두 넣는 투혼을 앞세워 쉼했던 경기를 끌었지만 승부치기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다.

/유순호기자

썰매 새 역사 윤성빈 평창까지 질주하라!

스켈레톤 16위… 역대 최고

스켈레톤의 신성 윤성빈(20·한국체대·작은 사진)이 4년 뒤 평창동계올림픽을 향한 희망을 그렸다.

윤성빈은 16일 러시아 소치의 산키 슬라이딩센터에서 열린 2014 소치 동계올림픽 남자 스켈레톤에서 1~4차 레이스 합계 3분49초57의 기록으로 16위에 올랐다. 한국 썰매 종목 사상 올림픽 최고 성적이다.

스켈레톤에서는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대회에서 강광배 현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FIBT) 부회장이 기록한 20위가 최고 성적이었다. 썰매 종목 전체에서는 2010년 밴쿠버 대회 봅슬레이 남자 4인승의 19위가 최고 기록이었다.

스켈레톤에 입문한 지 1년 반밖에 되지 않은 윤성빈의 놀라운 성장 속도를 볼 때 다음 올림픽이 열리는 평창에서는 상위권 진입도 노려볼 만하다. 타고난 순발력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한 스타트 능력은 그의 최대 장점이다. 이번 대회에서 윤성빈은 4초65~4초72의 스타트 기록을 작성했다. 윤성빈보다 빠른 스타트를 보인 선수는 4명밖에 없다.

썰매 종목에서 스타트는 전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윤성빈은 세계 정상급으로 진입할 기본 실력을 갖춘 셈이다.

내년 겨울이면 평창의 슬라이딩센터가 완성될 예정이라 윤성빈의 기량과 적응력은 급상승할 전망이다.

윤성빈은 "많은 분야 나를 두고 빠르게 성장했다고 하지만 남은 4년 동안에는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며 "그래서 평창에서는 꼭 좋은 성적을 내겠다"고 다짐했다.

/유순호기자

뒤꿈치에 새긴 "보고 있나" 지난 16일 러시아 소치 산키 슬라이딩센터에서 열린 2014 소치 동계올림픽 남자 스켈레톤 2차 레이스에서 윤성빈이 주지개를 벌이고 있다. 경기화 뒤축에 손으로 쓴 '보고 있나?'라는 글자가 눈길을 끈다. /연합뉴스

소치 하이라이트 (17일 한국 주요 경기·한국시간)

종목	세부 종목	경기 시작	한국 선수
봅슬레이	남자 2인승	23시 30분	원윤종 서영우 김동현 전정린
컬링	여자 예선	14시(미국전) 24시(캐나다전)	신미성 김지선 이슬비 김은지 엄민지
스키점프	남자 단체	19일 2시 15분	최흥철 최서우 김현기 강칠구

최운정 1타차 준우승

최운정(24·볼빅·사진)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ISPS 한다 호주 여자오픈에서 1타차 준우승에 머물렀다.

최운정은 16일 호주 빅토리아 골프장에서 열린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공동 선두로 출발했지만 2타를 잃고 합계 11언더파 277타를 적어내 4타를 줄인 카리 웨브(호주·합계 12언더파 276타)에게 우승컵을 내줬다.

웨브는 이번 우승으로 LPGA 통산 40승을 달성했다.

/유순호기자

프로농구 전적 (16일)

팀	1Q	2Q	3Q	4Q	합계
KT	21	13	16	9	59
SK	18	23	17	19	77
전자랜드	15	13	23	23	74
모비스	19	26	21	18	84
삼성	21	17	21	13	72
KCC	16	18	12	12	58
우리은행	10	14	12	16	52
KDB생명	13	6	14	18	51

프로배구 전적 (16일)

팀	세트	세트	팀
LIG손해보험	0	3	우리카드
GS칼텍스	3	2	도로공사